

國統調 90-3-25

蘇聯政治 改革의 展望

— 政權漂流 概念을 中心으로 —

研究責任：河 龍 出 (서울大教授)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政策調査研究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本 研究는 蘇聯의 政治改革過程을 브레즈네프 時代로부터 現 고르바초프 時代까지 「政權漂流」라는 概念을 中心으로하여 分析하고, 아울러 向後 蘇聯의 政治改革에 관한 展望을 하고 있습니다.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 5.

調 査 研 究 室

目 次

I. 序	3
II. 브레즈네프시대에 관한 研究	4
A. 「福祉國家 權威主義」모델	4
B. 브레즈네프 政權의 危機	9
C.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시각에서 본 브레즈네프 政權	13
D. S. Bialer의 立場	15
E. 新傳統主義 모델	19
F. 諸見解에 대한 평가	21
G. 正統性 理論의 再照明	26
H. 정권표류	30
1. 정권표류의 원인	31
2. 브레즈네프 리더십	31
3. 소련사회의 정치적 특징	33
III. 고르바초프 시대의 개혁동향	40
A. 고르바초프의 改革	40
B. 政治改革	42
C. 당내의 변화	45
D. 經濟的 改革	52
IV. 結論的 觀察	59
*註	61
**附錄(蘇聯의 主要動向 : 1989年度分)	65

I. 序

브레즈네프 政權은 1964年 登場하여 1982年까지 18여년간을 持續하였다. 무엇이 「브」 政權의 이와 같은 長期的 存續을 可能하게 했을까? 이 質問에 대한 答변은 여러 각도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本 論文은 過去의 研究 시각들이 갖는 한계에 주목하여 보다 深層的이고 綜合的인 分析을 통해 「브」 政權의 特性을 새롭게 規定해 보고자 한다.

최근 1985年 이래 進行되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에 따라 대부분의 論議가 페레스트로이카의 分析에 集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선 페레스트로이카의 내용이 단순히 政策的 對應이나 適應이 아니라 構造的 變化로서 페레스트로이카의 重要性은 지대하다. 또한 페레스트로이카의 對外的 影響은 蘇聯外交政策의 轉換뿐 아니라 東구라파를 비롯한 社會主義圈과 東·西 진영의 權力의 均衡에 중대한 影響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페레스트로이카의 重要性을 인정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論議가 現在의 狀況에 할애되고 있어,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즉 브레즈네프 政權의 성격 規定에 대한 論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브레즈네프 政權의 性格 規定은 단순히 歷史的 意味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의 背景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의 限界와 可能性을 보다 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本 論文은 브레즈네프 政權에 대한 過去 研究의 分析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에 대한 問題點을 제기함으로써 브레즈네프 政權의 性格 規定에 새로운 시도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에 바탕하여 고르바초프의 改革方向에 관한 評價를 시도하여 이의 未來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II. 브레즈네프 시대에 관한 연구

스탈린 時代의 終末이 후르시초프의 일관성 없는 改革政策에 의해 蘇聯의 엘리트와 社會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브레즈네프와 코시킨 政權은 최소한 엘리트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후르시초프 時代 빈번한 엘리트의 交替와 의도적인 社會組織과 黨官僚의 경쟁 조장은 엘리트들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브레즈네프 政權은 「幹部에 대한 信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엘리트들의 지지를 재규합하였다.¹⁾

동시에 1965年 코시킨 改革으로 불리는 전반적인 經濟體制改革을 시도하여 그 이전까지 있었던 미봉적 體制改革에서 탈피하여 중앙통제와 미시적 改革 즉 企業單位의 經濟的 活動 領域을 擴大하는 改革을 조화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브레즈네프-코시킨 政權은 1969年 이후 코시킨 改革의 실패 이후 이렇다할 改革을 추진하지 못하고 現實 안주적인 政權의 維持에 급급하였다.

이러한 중기 이후 브레즈네프 政權과 蘇聯 社會의 성격 規定에 관해 西歐의 蘇聯專門家들 사이에 많은 論爭이 야기되었다. 크게 나누어 대체로 5가지의 觀點이 登場하였다. 다음에서는 本 論文과 關聯되는 부문에 대해서 主要 논점들을 紹介·批判하기로 한다.

A. 「福祉國家 權威主義」²⁾ 모델

70年代 蘇聯 體制의 안정에 관해서 많은 學者들이 언급해 왔으나 대부분 일관된 理論的 體制가 미흡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의

傳統文化와 현대 蘇聯의 政治文化의 유사성을 강조하여 權威主義的 政權의 항구적 안정성을 分析하고 있다.³⁾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여러가지 社會科學的 用語로써 브레즈네프·코시킨 政權에서 일어난 政策的 政治的 改革의 정도를 概念化하려 하였다. 「브」政權 時代가 기본적으로 制度的 變革이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政權의 성격을 “과두적 고착화” “관료적 침체”로 규정하는 한편 變化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테크노크라트적 적응” “보수적 적응”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用語들 자체는 蘇聯의 未來를 보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이들은 觀察者의 主觀的 판단에 의해 크게 影響받고 있으며 現象記迷的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政權의 성격 묘사에 그치고 있어 政權과 社會와의 關係 또는 社會의 政治·社會學的 文化 形態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이렇게 잡다한 用語의 나열에서 벗어나 「福祉國家 權威主義」 이론은 蘇聯 政權의 性格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社會勢力의 性格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브레즈네프 政權은 첫째 政治적으로 최고 權力層이 制度化된 또는 組合主義的 多元主義의 方向으로 發展하여 社會·經濟的 問題에 관한 討論 過程에 專門家의 參與가 증대되었고 둘째 社會·政策 분야에서는 大衆 政治의 수단으로 테러의 사용이 금지되는 반면 政治·社會 분야의 대부분이 탈정치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政治적으로 체제 순응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水準의 물질적 보장과 사생활의 향유가 보장되게 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福祉國家權威主義는 政權이 최소한의 物質的 보장, 醫療施設의 確保, 教育과 福祉에 대한 公약을 주요 기초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 勞働者들의 職業保障, 經濟的 효율을 희생하면서까지 기본 소비재 價格의 安定 등을 내세우고 있었다.⁴⁾

이러한 福祉國家權威主義가 持續될 수 있는 社會構造的 特징으로 코너 교수는 우선 政治文化를 들고 있다. 그는 60여년의 共產主義 통치는 蘇聯市民들이 共產主義 政權에 대해 커다란 影響力이 없음을 자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련인들은 基本的인 社會福祉의 충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코너는 그 당시 蘇聯 政權이 이러한 基本的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보고 이러한 關係는 蘇聯의 政治文化에 상당히 重要的 影響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蘇聯의 政治文化는 歷史에 의해서 형성된 타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타성은 蘇聯政治의 급격한 變化나 어떤 論理的 法則에 의한 變化의 分析과 豫測을 어렵게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즉 타성——은 단순히 일반 대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專門家 階層에도 適用된다고 보고 있다. 각계 각층의 專門家 集團은 大衆들에 비해 相對的으로 나은 풍요와 안전을 댓가로 政治的 침묵과 그들의 專門性을 지불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論理의 연장에서 코너는 蘇聯의 既得權力階層에서도 크나큰 變化의 可能性을 인정치 않고 있다. 그에 의하면 蘇聯의 官僚層은 대체로 커다란 내부의 차이가 없는 同質的 構造를 이루고 있고 이들의 기본 價値概念은 無秩序와 民主化에 대응하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너는 유일한 變化의 源泉으로 國際的 環境의 變化를 들고 있다. 코너에 따르면 만일 中國과의 戰爭이나 中東에서의 갑작스런 變化는 國內體制의 均衡을 깨뜨려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大衆과 政權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새로운 政治的 變化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코너의 見解는 일견 상당히 合理的으로 보인다. 즉 全體主義體制가 가져온 政治社會學的 影響은 코너가 分析한대로 활력있는 대중 그룹을 생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過程에서 權威主義的 政治 傳統이 강한 蘇聯社會가 더욱 더 權威的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순한 強壓的 수단에 의한 權威主義體制의 유지보다 基本的 生活手段과 社會保障의 供給은 더욱 더 政治的 壓力을 무마하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코너의 立場은 흥미있는 分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의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蘇聯社會의 文化에 대한 너무 統一的 가정이다. “大衆”이라는 막연한 概念하에 蘇聯社會를 넣으므로써 蘇聯社會에 存在할 수 있는 많은 政治的 信念과 價値를 달리하는 그룹의 存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점은 蘇聯 社會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기인하는 制約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코너가 이러한 制約을 어떻게 다른 가정을 할 수 있는 可能性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問題點으로 등장한다.

同時에 一般 大衆의 同質性 가정과 함께 專門 엘리트들에 대한 劃一的인 가정 역시 問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專門 엘리트 이외에도 蘇聯의 政治엘리트들이 1970年代에 와서 蘇聯의 現實과 將來에 關係 同質的인 思考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⁵⁾

또한 그가 變化의 要因으로 보았던 戰爭의 勃發에 관해서도 1905年이나 1917年 러시아가 戰爭을 통해서 國民들의 信賴를 喪失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든 經濟的 需要를 基本的으로 充足시켜 주었으며 超強大國家의 地位로 올려 놓았던 政權에 대한 反應이 1905年이나 1917年 政權들에 대한 反應과 같을 수는 없을 것으로 豫想된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또 하나의 傳統은 강한 民族主義的 要素이다. 이렇게 볼 때 中·蘇 紛爭이나 中東 事態의 變전에 대한 蘇聯 사람들의 反應은 少數民族의 경우를 除外하면 상당히 民族主義的으로 나타나 政權의 威脅과는 거리가 먼 樣態로 나타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그러나 코너의 보다 根本的인 問題는 政治 文化 中心的으로 接近함으로써 엘리트 內部와 大衆 內部에 存在하는 意見과 立場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福祉主義的 權威主義의 基本前提인 經濟的 要求의 充足도 그리 용이치 않다는 점이 간과되었다.

大衆 사이에 存在하는 무수한 갈등의 要因이 대수롭지 않게 取扱되고 있다. 그 代表的인 것이 民族問題이다. 蘇聯의 民族問題는 단순히 經濟的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政治的·宗教的 要因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그 갈등의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⁶⁾

엘리트 內部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合意·一致된 엘리트 構造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른 意見들을 가진 그룹이 存在한다는 假定이 보다 現實的이다. 이는 蘇聯의 이데올로기의 특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 主要 特性은 原則과 目標만 분명할 뿐 달성 수단에 관해서는 많은 餘地를 남겨 놓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엘리트들 內部에 많은 意見의 多樣性을 招來할 수 있다.

엘리트 內部에 存在하는 社會·經濟 정책에 관한 異見은 政治的으로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이는 소련 政治體制의 將來를 豫測하는 데 重要할 뿐 아니라 주어진 社會福祉的 權威主義의 여러 形態를 상정할 수 있게 한다.

우파적 福祉權威主義는 비록 國民들의 物質的 基本 욕구를 充足시켜 준다는 항의일지라도 실제 政治的 분위기는 상당히 경직적인 것을 意味한다. 즉 행정통제상 介入과 동원체제의 얼마간을 유지하며, 軍事 및

重工業 부문에 대한 投資 역시 重要하게 취급된다.

社會에 대한 統制의 경우 言論의 검열과 反體制的 政治 인사에 대한 감시의 強化, 社會 專門 階層의 意思決定 參與의 制約 등을 前提로 한다.

이에 반해 좌파적 福祉權威主義는 약간의 地方分權化, 投資 우선순위의 轉換, 制限된 政治的 自由化, 文化的 多樣性的 認定, 政治 制度化的 推進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어떤 종류의 社會福祉的 權威主義의 形態를 취하던 社會福祉的 權威主義는 政權의 正統性を 相當 水準 認定하고 있다는 特徵을 갖는다.⁷⁾

그러나 최근 브레즈네프 政權에 대한 評價는 첫째 社會福祉的 權威主義가 상징하는 것처럼 國民들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시켜 주지 못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⁸⁾ 둘째 이러한 狀況에서 蘇聯 政權이 붕괴치 않고 外形적으로 存在한다는 事實을 安定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 나아가 安定이 곧바로 正統性を 意味하는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B. 브레즈네프 政權의 危機

福祉國家 權威主義와 정반대의 立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브레즈네프 政權을 慢性的 危機로 보는 見解이다. 이 見解에는 다시 브레즈네프 政權을 累積的 危機로 보는 立場과 再發的 危機로 보는 立場으로 나뉘어진다.

蘇聯 政治體制를 累積된 危機로 보는 見解의 代表的인 사람으로 브레진스키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蘇聯 政治體制的 특징은 蘇聯 政治指導界의 選擇 過程의 官僚化와 意思決定의 아파라칠에 의해 支配가 蘇聯의 經濟改革과 豫算의 재분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主張한다.⁹⁾ 이

에 따라 蘇聯市民들의 期待는 좌절되고 社會의 政治的 要求의 수용이 어렵게 된다고 보았다. 젊은 階層의 불만은 增大되고 消費者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달았으며 科學者들은 더욱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고 分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蘇聯共産黨이 社會 각 階層으로부터 政治적으로 疏外되어 窮極적으로는 無政府 상태에 이를 것으로 豫測하였다.¹⁰⁾

브레진스키의 이와 같은 見解는 많은 批判의 對象이 되어 왔다. 그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비판을 제기한 사람은 J. Hough였다. Hough는 브레진스키와 달리 蘇聯政權에 대한 社會的 支持가 상당한 水準에 이르고 있음을 主張하였다. 그는 蘇聯共産黨 政權의 특징으로 “制度的多元主義”로의 이행, 黨의 결정과정과 결정의 內容에서 경직된 처방의 弱化和 黨內 意思決定에 있어 機能的 독자성의 증대, 도그마의 弱化, 專門家와 大衆들의 意思決定에의 參與 增大, 消費財·需要의 漸進的 充足, “위로부터 革命”의 중단, 평등한 社會政策, 貧困 階層에 대한 관심등을 지적하였다.¹¹⁾

Hough의 이와 같은 主張은 앞서 지적했던 左派的 福祉國家權威主義型的 代表的인 예로 브레즈네프 政權의 위기의 상황을 잘 代辯하고 있다.

그러나 1970年 중반 이후 이러한 특성들은 크게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이전의 左派的 福祉國家 政策은 右派的 對應으로 많이 弱化·무마되었다. 그 代表的인 예들로 經濟管理組織의 分權化는 1971年 生産聯合計劃의 失敗 이후 거의 진전이 없게되었다. 農業政策에 대한 역점에도 불구하고 農產物 生産의 增加는 實現되지 못해 物資 不足 現象은 加速化되었다.

社會科學의 發展에 있어서도 全般的인 領域에서 獎勵되기 보다는 制限的 主題에 국한되게 되었다. 反體制 인사들에 대한 彈壓 역시 強化되고 브레즈네프에로의 權力集中이 增大되었다. 또한 급속도로 老化되는 最高 權力階層에 대해 거의 交替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現象은 브레진스키와 같은 累積的 위기관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즉 消費者 期待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中世的 非能率性, 少數民族問題, 權力階層, 東歐에서의 安定 등이 危機의 主要 要因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福祉國家權威主義者들의 비판은 蘇聯政治指導者들의 “예상적 리더쉽” 즉 위의 問題에 대한 蘇聯政權의 대비를 무시하고 있으며 構造的 疏外가 곧바로 심각한 반대로 나타난다는 假定 또한 妥當성이 없다고 본다. 끝으로 이러한 각 分野의 危機가 동시 다발적 내지는 累積的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반대하고 있다.

蘇聯 政治體制를 反復的 危機에 쌓인 불안정한 政治體制로 보는 見解는 Richard Lowenthal에 의해 제시되었다. Lowenthal은 브레진스키의 見解에 대한 批判을 意識하면서 基本的으로 브레진스키의 見解가 가지고 있는 問題點을 시정하려 하였다.

그는 蘇聯 政權의 制約性的 性格, 불안정성의 本질, 예측의 時限성에 관해 좀 더 상세한 分析을 시도하였다.¹²⁾

브레진스키의 立場을 批判하는 福祉國家權威主義의 立場에 대해 Lowenthal은 黨官僚의 意思決定 독점과 專門家の 참여가 兩立 不可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同意하면서 이러한 構造가 蘇聯 政權의 短期的 安定성을 保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長期的으로 蘇聯社會에 指導階層과 大衆 사이에 극히 허약한 關係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長期的으로 黨官僚의 權力 독점은 經濟改革을 어렵게 하여 安定的이고 고도의 經濟成長을 不可能하

게 할 것으로 豫見하였다.

이러한 經濟的 難局은 國民들의 政權에 대한 태도에 影響을 주게되고 政治過程의 問題點은 國民의 이러한 不定的 태도를 오판하게 되며 이것이 窮極的으로 政治的 危機를 招來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Lowenthal은 根本的인 政治的 改革 없이 一黨統治의 正統性的 하락을 막을 길이 없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Lowenthal에 의하면 長期的인 正統性的 하락이 蘇聯政權의 不安定性的의 要因이 되고 있다. 특히 그에 의하면 現在 反體制 인사들의 規模나 影響力이 小規模에 그치고 있으나 長期的으로 이들의 사고가 社會 전반에 蔓延되어 政權의 決定的인 失敗가 危機 狀況에 이를 때 政權에 큰 도전으로 등장할 것으로 分析하였다.

일견 Lowenthal의 이러한 見解는 상당히 強力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owenthal의 概念的 틀은 基本的으로 機能主義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蘇聯의 現實을 직시하기보다 機能主義的 명제를 蘇聯의 現實에 강요하는 부작용을 招來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蘇聯 政治的 發展을 동적이고 變증법적으로 보기보다는 모든 社會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 蘇聯에서 불가피하다는 해석으로 이르게 된다.

本 論文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問題로 重要的 것은 正統性에 관한 것이다. Lowenthal은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正統性 問題가 政治 安定의 核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 명제는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重要的 점은 正統性的의 확보 수단과 正統性的의 水準과 政治的 安定과의 關係에는 상당히 다양한 유형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또한 正統性的의 결여가 곧바로 政權의 不安定에 이르며 역으로 政權의 安定이 곧바로 正統性的의

存在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重要的 것은 이러한 一般的 명제를 現實에 强요하기보다는 政權과 社會와의 關係의 성격을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分析한 후 正統性和 安定性과의 關係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統治可能性(governability)와 安定性(stability)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政治的 安定에는 現狀的 共通性에도 불구하고 상 당히 많은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統治可能 性」은 安定形態 가운데 不安定的 후의 끝에 존재하는 安定的 한 形態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重要的 問題는 客觀的인 政治的 不安定の 要素가 具體的인 歷史 的 文化的 맥락 속에서 어떻게 表출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브레 진스키나 로엔탈의 立場은 蘇聯 밖의 分析들이나 普遍的 概念을 蘇聯的 狀況에 適用시켰다는 問題點을 안고 있다. 重要的 點은 蘇聯的 狀況의 정확한 評價分析만이 蘇聯政治改革의 形態, 方向, 問題點에 대한 理解를 可能하게 할 것이다.

C.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시각에서 본 브레즈네프 政權

이의 代表的 主張자로서 Roy Medvedev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70年代初 蘇聯의 政治的 將來를 예측하면서 公共所有의 財産形態와 一 黨獨裁에 基礎하면서 政治的 競爭과 國民에 대한 責任을 保障하는 政治 體制를 상정하였다.¹³⁾

그는 이와 같은 豫測의 근거로 黨內 知識人들 사이에 存在하는 “위 로부터의 改革”의 支持 勢力을 들고 있다. 물론 그렇다하여 그가 당시 黨의 핵심 세력 가운데 강한 改革 추진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 니다. 그는 세대교체에 따라 젊은 黨 官僚 가운데 改革 意志가 상당

히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⁴⁾

그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신봉하는 社會勢力의 기반으로 社會科學 關聯 知識人, 作家, 文化界 인사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이 階層과 意識이 발달된 勞動者 階層, 진보적 黨官僚간의 聯合可能性을 指摘하였다.

메드베데프는 蘇聯의 國內政治 變化를 위해 國際的 與件이 미치는 影響에 대해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냉전 구조가 아닌 이상 國際的 要因이 蘇聯의 改革이나 改革의 沮止를 위한 壓力으로 作用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의 實現을 위해 科學·技術革命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科學·技術革命의 촉진에 사람들의 인식의 變化를 촉진할 뿐 아니라 物質的 基盤의 擴充에 重要な 要因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單純한 科學·技術革命의 促進이 곧 바로 社會主義的 民主主義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重要的 것은 公開的인 政治的 討論과 갈등의 조정 기구의 存在이다. 이러한 構造의 存在은 黨 官僚들로 하여금 大衆의 主導權과 協力 및 技術的 發展을 가져오는 契機임을 인식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메드베데프는 그의 分析 基準으로 1961年 蘇聯共產黨 강령, 西歐의 政治·經濟水準, 社會主義體制에 內在하는 可能性등을 들고 이 基準들을 통해 蘇聯의 성취를 평가하였다. 그의 결론인 이 세 基準에 비추어 蘇聯의 發展은 상당히 저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단순한 技術革命을 통한 技術官僚主義는 진정한 政治的 民主化없는 社會主義의 成功을 期待할 수 없다고 豫見하였다. 이는 곧 앞서 지적된 福祉國家 權威主義의 立場과 根本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메드베데프의 주장 가운데 두가지 흥미로운 점은 평화로운 變化를 目

標와 過程의 특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평화로운 變化는 기존 政治엘리트들의 각성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豫想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밑으로부터의 壓力에 의해 브레진스키나 로엔탈이 상징하는 危機的 폭발의 可能性을 當爲的으로 現實的으로 否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메드베데프가 다른 著述에서 言及했듯이¹⁵⁾ 蘇聯社會의 政治的 특징으로 變革, 反動, 無政府狀態가 더 이상 蘇聯政治體制의 선택이 아님을 인정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에 의하면 蘇聯市民들의 政治態度는 급격한 經濟·政治的 危機가 없는한 커다란 움직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메드베데프는 蘇聯 社會의 급격한 危機 可能性을 排除함으로써 蘇聯政治體制의 變化의 展望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D. S. Bialer의 立場

1980年代 브레즈네프 政權의 安定性を 가장 多角的이면서 現實的으로 접근한 사람은 Bialer였다.¹⁶⁾ 그는 蘇聯의 政治的 安定에 기여하는 蘇聯政治의 특징을 다음 같이 들고 있다.

첫째 蘇聯의 政治秩序는 非政治的 분야에서의 갈등이 政治的 갈등으로 轉換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蘇聯의 政治的 經驗은 政治엘리트간의 關係나 政治엘리트와 다른 부문의 엘리트와의 관계가 政治엘리트와 일반대중과의 관계보다 蘇聯政治의 安定要因으로 더 重要하다.

셋째 蘇聯의 상황 하에서는 政治的 安定을 위해 복종의 유형과 水準이 積極的 支持 水準보다 더 重要하다.

넷째 蘇聯政治體制는 政策에 대한 一般的 支持보다는 政策 대상인 특

정 그룹들의 支持가 政治 安定을 위해서 重要하다.

다섯째 蘇聯政治體制의 政策決定 過程에서 政治엘리트와 다른 엘리트 사이에 절차적인 支持보다 實質的 支持가 政治安定을 위해 더 重要하다.

여섯째 蘇聯의 合意 構築 過程은 상향식보다 하향적 전달이 더 重要하다.

끝으로 機能的 분리에 기초한 組織들 사이의 합의보다는 政治엘리트간의 合意가 더 重要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Bialer는 기존의 西歐의 蘇聯政治 접근 모델이었던 全體主義를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全體主義 모델은 모든 蘇聯의 政治過程이 計劃에 의해 유지되는 철저한 組織·統制社會로 보고 있어 執行 過程에서 자생적으로 發生하는 協商과 왜곡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批判하였다.

둘째 이 모델은 蘇聯 計劃政治가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結果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批判하였다. 끝으로 形式的 통제 과정에만 역점을 두고 이러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야기되는 社會的 기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批判하였다.

그는 細部的인 蘇聯 政權의 安定과 正統性的 維持의 이유로 첫째 政權의 實踐 기록을 내세우고 있다. Bialer에 의하면 蘇聯 經濟는 1970年代 중반까지 총체적인 수량면에서 상당히 괄목할만한 成長을 기록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는 소비재 부문에서도 꾸준한 向上이 이룩되었다고 前提하고 具體的으로 식탁의 內容이 질적으로 나아졌다는 점과 일반 消費財가 種類와 量에서 풍부해졌다고 보았다. 住宅 部門에서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으나 過去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農業 部門에서도 政權이 투자한 만큼의 效果는 없지만 그러나 成長이 있었다고 보았다. 즉 農業 部門이 危機 狀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70年代 農業의 危機는 過去와 그 性格이 다른 점을 지적하였다. 過去 農業 問題가 주로 알곡 生産의 問題였다면 1970年代의 課題는 肉類와 고급 食단을 위한 家畜 飼料의 增産 問題라고 規定하였다.

全體的으로 브레즈네프 政權은 國民들이 원하는 財貨를 供給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國民들의 增大하는 기대감을 充足한 것으로 規定되었다.

Bialer는 政權의 安定과 관련 급격한 經濟의 하락을 불안정의 要因으로 보고 브레즈네프 政權 하에서 이러한 現象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분배 過程에서도 各 階層과 地域이 빠짐없이 혜택을 본 것으로 分析하였다. 특히 분배 過程에서 蘇聯 社會에서 가장 소외된 階層들의 生活 水準이 向上되었음을 指摘하였다. 즉 최저 賃金 水準의 50% 引上, 年金의 상당 폭의 引上, 農民의 社會保障制度로의 編入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또한 蘇聯 政府는 物價 政策 등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런 접근을 하여 특정 階層의 生活 水準의 급격한 變化를 방지하였다. 이러한 低物價 政策은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보충되었다.

끝으로 브레즈네프 政權의 生活 水準 提高 政策은 꾸준한 社會 階層의 上向的 調整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컨대 蘇聯의 農業 部門의 비중은 1965年과 1975年 사이에 약 37%가 감소되었고 集團農場의 農民의 수도 역시 20%이상 줄었다.

國際政治的 次元에서 蘇聯은 增大하는 軍事力에 힘입어 美國과 동등한 超強大國家의 地位를 獲得하였으며 이는 蘇聯의 國際的 地位와 이미지 改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Bialer는 外交政策의 成功을 國內政治의 成

就보다 더 크게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는 蘇聯政權의 安定要素만 國內政治的 成果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았다.

브레즈네프 政權의 具體的인 成就 이외에 Bialer는 蘇聯 社會의 增大되는 기대감의 性格에서 安定의 要因을 찾았다.

그에 의하면 브레즈네프 政權하의 反體制 인사는 小規模의 활발한 反體制 엘리트와 미온적 體制 불만 勢力과를 구별하고, 전자는 그 수와 勢力에 있어 小規模임으로 分散, 疏外, 中和 전략에 의해 政治的 불안정 要素가 될 수 없게 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애초부터 그 성격상 體制 불안 要素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反體制 인사 이외의 社會 構成員들은 體制的 變化를 구하기보다는 體制 適應的 性向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體制 適應的 勢力들은 스탈린 死後 蘇聯社會에 나타난 肯定的 變化들, 즉 專門職의 自主性 增大, 표현의 自由의 擴大, 漸增하는 外部와의 接觸 등에 基礎하고 있으며 이는 政權의 積極的인 자세에 의해 執行되어 왔다는 것이다.

증대되는 蘇聯 市民의 期待感은 政權의 消費主義 政策에 의해서 많이 해소되었고 외국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相對的 궁핍감은 蘇聯人들의 過去 比較적 시각—— 즉 그들의 過去에 비해 向上된 現在를 평가——에 根據하고 있어 政權에 대한 威脅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브레즈네프 政權의 安定性的 要因으로 Bialer는 蘇聯政治의 制度化와 政治的 참여의 性格과 內容에서 브레즈네프 政權의 安定을 찾고 있다.

Bialer는 蘇聯市民의 政治的 性向을 政治的 무관심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政治的 無관심을 政治的 安定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蘇聯政治를 高級政治(high politics)와 低級政治(low politics)로 나누었다.

高級政治는 蘇聯體制에 관한 主要한 意思決定을 말하고 低級政治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일, 地域問題, 職場問題에 관한 意思決定을 말한다. 즉 前者가 意思決定이라면 後者는 주로 그 意思決定의 執行過程에서 일어나는 후속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Bialer는 蘇聯市民의 대다수가 前者에는 무관심하나 後者에는 많이 관련되어 참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政治的 무관심과 함께 蘇聯社會에 나타난 主要한 현상은 각종 專門集團의 組織化 현상이다. 이들 專門 集團들은 브레즈네프 政權下에서 각종 政策決定 過程에 專門的 조언을 해왔다. 이는 브레즈네프 政權이 政策決定過程에서 專門性을 강조한 결과였다. 이러한 專門集團의 참여는 主要 社會 엘리트들의 불만을 사전에 封鎖하는 機能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Bialer는 蘇聯 政治에서 正統性이 政權의 長期的 持續, 主要 危機의 克服, 超強大國 民族主義 막시즘과 民族主義의 成功的인 共存, 蘇聯社會에 이익을 가진 集團들의 등장, 엘리트내에 存在하는 단결된 立場등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E. 新傳統主義 모델

Bialer의 낙관적인 見解와 정반대로 K. Jowitt은 브레즈네프 時代의 蘇聯의 政治社會의 특징을 新傳統主義(new-traditionalism)로 規定하였다.

Jowitt에 의하면 레닌식 社會主義의 發展段階는 變革(transformation), 體制鞏固化(consolidation) 영입(luclusion)의 課題와 段階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⁷⁾

變革의 段階는 革命을 통해서 過去 遺産의 청산과 階級의 적을 제거하는 段階를 말한다. 체제공고화의 段階는 새로운 政治·經濟秩序의 確

호을 意味한다. 蘇聯의 경우 計劃經濟 體制와 農業集團化를 意味하였다. 영입단계는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秩序 위에서 階級の 적이 없는 社會와 공산당 사이의 關係가 敵對的인 關係로부터 非敵對的 非權威的 關係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Jowitt에 의하면 각 단계마다 카리스마적, 傳統的, 近代的 要素가 혼합되어 있어 그 主要 특징은 리더십의 선택에 의해 決定된다.

예컨대 브레즈네프의 時代는 政治리더십이 스탈린과 같은 설턴(sultan)적 지도자를 배격한 동시에 흐루시초프와 같이 黨 權威를 弱화시키는 民衆主義的 접근도 배격했다. 브레즈네프는 黨의 우월하고 排他的인 地位를 인정하여 黨官僚와 간부를 절대화시켰다. 이러한 결과 “전리품 經濟”, 기생적 共產黨, Scavenger Society를 창출하여 新傳統政權의 모습을 띠게되었다는 것이다.¹⁸⁾

新傳統主義的 要素를 지닌 브레즈네프 政權은 다음과 같은 遺産을 남겼다. 經濟的으로 아주 前近代的 經濟體制를 낳았다. 흔히 사람들은 蘇聯經濟가 스푸트닉, 미사일, 鐵鋼 등 近代的 生産能力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近代的 經濟體制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軍事, 消費財, 암시장의 3개가 統合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혼합형에 불과했다.

蘇聯 經濟는 근대 經濟體制라기보다는 가정경제와 비슷한 특성을 띠고 있다. 즉 社會, 政治, 經濟 領域에서 公·私의 領域의 구별이 분명치 않은 성격을 띤 社會의 모습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蘇聯 經濟를 바라보는 시각은 經濟를 유기적 次元에서 움직이는 메카니즘으로 보기보다는 엘리트들에 의한 약탈의 對象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狀況에서 사실상 計劃經濟 자체도 원칙에 의해서 運營되기보다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市場經濟도 計劃經濟도 아닌 현상을 가져왔다.

蘇聯 市民들 역시 經濟的 재화를 보는 시각은 언제나 자기 몫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는 사유재산제의 결여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 재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社會主義 體制의 왜곡 현상이었다.

政治·社會 領域에서 보다 심각한 현상이 나타났다. “黨官僚에 대한 信賴” 政策은 黨 官僚들에 대한 效率적인 기강 확립을 어렵게 하였다. 이에 따라 黨 官僚들은 個人的 利益과 黨의 利益, 黨의 利益과 社會 全體의 利益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게으른 權力 독점자”로 전락하였다.

共和國 전체 水準에서 이러한 현상은 共和國間的 유대와 통합의 문제 보다는 주어진 地域에서 黨官僚의 마피아 조직이 지배하는 地域的 원심화 현상이 現實적으로 위기에 이르지 않고 지탱되는 현상을 야기했다.

F. 諸 見解에 대한 평가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밝혀진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체 현상에 대한 批判을 根據로 앞서 言及된 몇가지 브레즈네프 시대에 대한 分析을 검토해 본다.

Bialer의 견해는 브레즈네프 정권의 安定과 正統性を 기본적으로 認定하고 있는 見解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政治的 安定과 正統性を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正統성이 있는 정권은 安定的이고 安定的인 정권은 正統성이 있다는 假定이다. 이러한 假定 위에 Bialer는 정치적 安定과 正統性的의 最低 기준과 最大 기준을 설정하고 브레즈네프 정권이 최소한 最低 기준의 正統性— 즉 엘리트 내부의 正統성과 최대한의 服從의 확보—의 기준선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見解는 正統性和 安定性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는 표면적 安定性에 根據하여 正統性的 根據를 逆으로 찾으려는 노력에 그 문제가 있다. 正統성이 있는 정부는 安定的일지 모른다. 또는 일시적 불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安定性的의 概念과 거의 正統性과의 관계는 더욱 綿密히 검토되어야 한다.

Bialer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正統性的의 根據는 단순한 服從에서 적극적 지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한 服從에 根據한 正統性和 적극적 지지에 根據한 正統性은 嚴密한 의미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브레즈네프 시대에 있어 단순한 服從조차 제대로 유지되었었는지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 즉 정치적 安定을 단순히 정권의 危機의 결여로 규정한다면 정권의 安定과 正統性的의 관계는 보다 넓게 피상적 安定性的의 源泉이 세분화된 分析이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렇게 볼 때 正統性的의 根據로 정권의 지속 시간, 문화적 유산과 특성, 危機의 극복을 지적하고 있는 Bialer의 見解는 비판적으로 수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그것은 이러한 요인들은 정태적 요소들로 특정정권의 安定의 설명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요인들은 매개 변수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갖추어지더라도 不安定한 정권과 非正統的 정권의 존재는 많이 나타난다.

끝으로 Bialer가 주장하는 브레즈네프 시대의 경제적 성과와 蘇聯國民들의 생활 수준에 대한 준거점이 그들의 과거에 있다는 주장도 根據가 薄弱하다. 前者에 대해서 고르바초프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극명하게 브레즈네프 시대의 경제 사정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보드카와 기름이 없었다면 蘇聯經濟는 전혀 實質成長을 기록하지 못

했을 것이다.¹⁹⁾

後者에 대해서는 蘇聯市民들의 海外旅行의 제한과 보수적 경향등에 비추어 정태적 차원에서 首肯이 가는 論理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악화되는 소비재 생산 水準등에 대해 蘇聯市民들의 불만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 하더라도 現實적으로 부족한 생활은 정권의 表皮的 危機를 자아내지는 않을지언정 正統性을 정권에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Breslauer의 福祉國家權威主義 개념도 Bialer에 대한 비판과 유사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비록 이 見解가 브레즈네프정권의 意圖를 반영하고 있지만 그 의도와 정책 결과 사이에는 많은 差異가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정권과 사회 사이에 存在하는 物質的, 實用的 關係만을 중시하고 이에 根據한 正統性의 確保를 설정하는 것은 物質的 충족이 正統性과 安定性 확보에 차지하는 비중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첫째 物質的 충족의 정도가 이미 言及된대로 그렇게 만족할만한 것이 되지 못했으며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브레즈네프 정권의 특징은 窮乏의 정치(Politics of Shortage)이었다는 점이다.

窮乏의 정치 아래에서는 한정적 경제 통제와 어울려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 窮乏의 謀免을 위해 행해지게 된다. 정권은 표면상으로는 도덕적 규범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2중적 기준을 意圖적으로 허용함으로써 大衆의 도덕적 타락과 이와 함께 隨伴되는 체제 의존적 태도를 誘發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위에 기초한 정권을 과연 正統性이 있는 政府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또 다른 概念 체계가 필요한 것인가? 本稿는 後者の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당관료에 대한 信賴政策에 기준하여 당관료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동의가 存在한다는 假定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로 브레

즈네프 中期 이후 엘리트 사이에 많은 갈등과 異見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다. 이는 Bialer나 Breslauer의 경우 간접적으로 假定하는 엘리트내의 正統性 概念에 크게 도전하는 것이다.

Jowitt의 新傳統主義 概念은 이 모든 見解에 비해 상당히 신선하고 그만큼 현실적인 面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Jowitt의 사고에는 동적이고 발전론적인 側面이 있다. 그것은 레닌식 정권들이 다른 발전단계를 겪어 가는 過程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다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레닌식 정권이 카리스마的, 近代的 傳統的 要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정권의 성패에 따라 3가지 특징 중 어느 하나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즉 近代化의 노력의 결과 傳統的 要素가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可能性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傳統的 要素를 띠고 있는 정권과 사회와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사회와 정권과의 동적 關係를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見解는 브레진스키나 로엔탈이 부패한 정권과 近代化된 사회를 대치시키는 것과 달리 부패한 정권이 社會에 끼치는 影響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 見解는 蘇聯 共産黨 엘리트들의 경제관념이 傳統的인 物物交換이나 전리품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改革의 어려움을 선명하게 표출시키고 있고 이러한 觀念이 社會 전반에 걸쳐 蔓延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見解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Jowitt이 제시하는 蘇聯 社會의 부패된 이미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社會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부패의 성격 規定과 패턴에 대해서는 상세한 言及이 없다. 더우기 부패된 蘇聯社會

의 정치적 의미가 분명치 않아 정권에 의해 부패가 蔓延되는 정권에서 사회로의 일방적 관계만이 設定되어 있다. 즉 부패된 社會가 다시 정권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다. 일단 구축된 부패의 構造는 그 자체의 동적인 過程을 통해 정권의 안정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즉 Jowitt의 견해는 정권 차원에 역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러한 정권과 사회와의 關係의 特徵과 性格 規定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부패된 정권과 부패된 사회와의 關係가 표피적 安定과 위기의 謀免을 정치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正統性 概念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Jowitt의 見解에서는 관심 밖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두가지의 문제를 보완·확보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意圖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蘇聯 社會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현상들에 대한 재해석과 정치적 安定과 正統性의 문제에 대한 일반론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蘇聯 정치적 脈絡 속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前者의 경우 중요한 것은 蘇聯 市民들이 브레즈네프 정권 下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생활을 영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에 대해 어떠한 態度를 유지하는가, 이러한 態度가 정권의 유지에 어떠한 影響을 주는 것인가의 미시적 분석과 蘇聯 정치과정에서 정치적 參與와 정치소외의 의미를 再解釋해야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後者の 경우 서방의 正統性 이론의 특징과 社會主義 국가에서 正統性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과 正統성과 정치적 安定과의 관계의 再定立이 요청된다.

끝으로 이에 기초하여 社會의 성격, 社會와 정권의 關係의 성격, 정권의 성격 規定을 통해 세분화된 정권 安定의 유형을 설정해 볼 것이다.

G. 正統性 理論의 再照明

正統性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研究는 막스 베버에 의해 이루어졌다. 베버는 正統性 分析을 위해 규범적 사회질서(ordnunger)와 지배체계(Herrschaft)로 나누고 있다.²⁰⁾ 前者는 정치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는 根據를 말한다. 이러한 根據로 傳統, 物質的 計算, 正統性을 들고 있다. 베버는 인간의 충성심의 결정 요인들로 기회주의적 根據로 위선적인 자극이나 物質的 利害關係, 개인의 허약함이나 다른 수단의 缺如등을 들고 있다. 이에 正統性 즉 공포나 편리성에 根據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 의해 강요되는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려는 것은 이와같이 여러 형태의 社會秩序 유지의 根據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주의할 것은 베버에 있어 社會秩序의 유지 요인과 正統性的 根據 사이에 상당한 類似點을 가지고 있어 혼돈의 可能性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의깊게 관찰한다면 正統性的 根據에는 사회질서 요인인 物質的 要因은 들어가지 않는다. 베버가 物質的 根據의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는 데서 이 점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베버는 正統性을 부여하는 根據를 傳統, 法, 카리스마로 나누어 보고 있다. 正統性的 根據로서 傳統은 지금까지 存在했던 관습이나 습관에 의해 자연적으로 기존의 질서가 正統的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카리스마에 부여하는 正統性은 카리스마가 가져오는 非凡한 행동이 주는 模範的 영향, 豫言등이 주는 점 등에 의한 지도자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法의 正統性的 根據는 형식적으로 정당한 規則이라는 것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節次에 의해 強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正統性的 根據는 여러가지로 分別해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는 모든 요인들이 複合적으로 作用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그 특징을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베버의 正統性에 관한 理論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브레즈네프 정권을 分析하는 데 많은 示唆點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정치질서와 支配 혹은 권위를 구별함으로써 正統性 있는 支配가 정치질서 유지의 일부로서 정치질서 유지가 곧바로 正統性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安定의 形態 속에 몇가지의 다른 根據를 가진 形態들이 存在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베버가 지적하듯이 物質的 관계에 基礎한 지배관계는 불안정할 뿐 아니라 正統性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基礎하여 볼 때 브레즈네프 정권이 消費者主義와 正統性을 교환했다는 分析은 正統性을 정권에 대한 지지로 본 경우를 제외하면 옳지 못한 것이다. 특히 도덕적 타락과 이데올로기의 機能이 弱화된 상황에서 정치질서의 당연한 維持에 대한 懷疑가 存在하고 동시에 正統性 부여 동기가 弱화된 브레즈네프 정권의 위장된 安定은 正統性있는 정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브레즈네프 정권의 正統性的 根據를 공산당 정권의 장기적 지속에서 찾는, 즉 傳統에서 구하는 논리도 그 根據가 薄弱하다. 공산당이 蘇聯에서 오랜동안 支配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브레즈네프 정권에 대한 것은 다르다. 만약 공산당의 장기 집권이 正統性的 기반이 된다면 후르시초프 정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산당의 장기집권의 正統性으로서의 根據는 상수로 보아야 되고 각기 다른 정권은 다른 正統性的 근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장기집권은 正統性 확보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여타 正統性 확보 요인이 可能할 때 상승적으로 그 效力을 나타낼지 모른다.

세제 정권의 正統性은 동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레닌주의에 基礎한 정권이 카리스마적 要素가 주요한 正統性的 基礎였다면 카리스마를 維持하기 위한 과제가 사라짐에 따라 다른 正統性的 要素가 登場하거나 혹은 正統性的 根據를 喪失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정권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蘇聯의 경우 맑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은 브레즈네프 시대에 와서 엘리트들의 支配를 合理化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즉 蘇聯社會가 나아가 성취할 目標 設定과 手段의 提示에 있어 한계에 逢着한 것이다.²¹⁾

브레즈네프 정권 下에서 나타난 理論的 합리화는 “발전된 사회주의 (developed socialism)이었다. 이 概念에 의하면 1917년부터 1936년 사이를 사회주의 건설로 보고 1936년을 사회주의 사회로의 돌입 基點으로 설정했다. 1960년부터 蘇聯社會는 발전된 사회주의 段階로 들어섰으며 共產主義 사회는 蘇聯社會가 指向하는 마지막 段階로 보았다. 사회주의 段階는 그 발전 정도에 따라 質的인 차가 심해 세분화가 요청되며 발전된 사회주의의 段階는 역사적으로 고유한 것이며 그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²⁾

발전된 사회주의의 특징은 첫째 生産規模의 괄목할 만한 증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技術과 科學革命의 등장이다. 둘째 均衡있는 생산발전이다. 과거와 같은 重工業에 바탕한 國防爲主의 經濟發展에서 國防, 消費, 성장의 均衡을 맞추어 가는 經濟施策의 전개이다.

세제 사회구조에서 調和와 統一을 특징으로 한다. 前者가 사회계층간의 이해가 완전히 解決된 상태를 指稱한다면 後者는 공통된 價値觀은 공유하나 계층격차가 상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착취적 계급구조는 사라지나 사회구조의 분화는 상존하는 段階이다.

끝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少數民族 문제가 解決되어 새로운 역사공동체가 生成된다는 것이다. 이 共同體內에서는 소비에트연방을 단위체로 인정하는 「소비에트인」의 登場으로 과거와 같은 소수 민족간의 葛藤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의 出現을 促進시키는 것으로 국제관계에서 蘇聯의 힘과 경제력의 增強으로 蘇聯의 국제적 지위 向上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에 蘇聯의 영향력 行使의 증가를 들고 있다.

발전된 사회주의는 후르시초프가 1980년대 공산주의의 출현을 壯談하던 선언을 부정하면서 그 負擔을 다른 방식으로 모면하면서 공산당의 지배를 연장하는 이론적 虛構였다.

발전된 사회주의의 空虛性은 그 구성요인의 妥當性이 전혀 없었던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생산규모의 괄목할 만한 成長도, 과학 기술의 進歩도 일어나지 않았다. 균형된 部門間的 投資는 이루어지지 않아 만성적 소비재 부족현상은 정권의 存在 자체를 威脅하게 되었다. 또한 극단적인 예로 소수민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일련의 少數民族들의 움직임은 소비에트인의 出現이라는 理想과는 거리가 멀다. 발틱3국의 獨立 움직임, 중앙 아시아, 조지아 등의 반항은 蘇聯 聯邦體制 構成의 根本的 再編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와 現實의 격차는 이데올로기의 機能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와 함께 體制의 효율성 자체도 危機 狀況에 직면하였다. M. Lipset에 의하면 正統성과 체제의 효율성이 정치안정기 核心的 요소로 된다고 한다. 이 기준에서 볼 때 브레즈네프 정권은 正統性도 효율성도 缺如된 정권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危機에 싸인 정권은 아니었다.²³⁾ 즉 앞서 지적한 社會福祉權威主義 개념 등이 주는 안정도 브레진스키등이 제시한 위기정권도 아닌 상황이 展開되었다.

H. 정권 표류

이러한 危機도 아니고 安定도 아닌 正統性이 없는 정권의 성격 규정을 위해 政權漂流의 개념을 상정한다.²⁴⁾ 政權漂流란 목적지향적 정권이 목표의 설정이나 再規定이 어려워진 狀態에서 사회와 정권이 유지되는 狀況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逆機能的인 狀況이 만성적으로 전개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存在하는 것을 말한다. 正統性의 喪失과 효율성의 喪失에도 불구하고 危機 狀況에 빠지지 않는 최소한의 安定과 危機的 狀況 사이에 존재하는 정권을 또한 달리 표현한다면 政權漂流은 正統性이 없는 정권이 상당기간 存續하면서 위장된 정치적 安定(false stability)의 形態를 取하고 있는 狀況을 말한다.

政權漂流 개념·설정의 의미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安定(political stability)의²⁵⁾ 개념의 모호성을 克服할 수 있다. 정치적 安定의 概念은 위기의 결여 狀態에서 正統性 있는 진정한 安定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概念이다. 政權漂流 概念은 이 安定이라는 광범위한 現狀중 특정 部門을 분리해냄으로써 安定 개념의 명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政權漂流 概念은 정통성 이론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존재하는 모든 정권에서 正統性의 根據를 찾기보다는 정권 존재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통성이 없는 정권의 존재 根據를 밝혀 정통성과 정권의 安定과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

셋째 政權漂流 概念은 정권과 사회와의 관계를 단순히 構造的 正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인 차원에서 分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정치학의 정권에 대한 分析은 정권개념, 국가개념 등 正태적 分析이다. 사회구조 分析등 구조적 分析이 상호 接合되지 못하

거나 집합된 경우에도 구조적 모델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사실적·역사적 記述에 치중한 研究는 이론적 접근이 缺如되었다.

정권표류 개념은 한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정책적, 이데올로기적 諸般 차원에서 檢討·分析하고 정권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유형을 추출해냄으로써 정권이 맞아야 하는 課題와 도전 및 이의 解決 類型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정권이 취하는 각종 정책과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反應에 대한 分析이 필요하며 거시적으로 정권과 사회의 관계와 발전 유형에 대한 分析이 並行되어야 한다.

1. 정권표류의 원인

政權漂流의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 이데올로기와 現實의 隔差, 엘리트들간에 存在하는 合意의 缺如, 사회적 차원에서 대중의 정치적 疏外와 체제 擄取的 행위의 등장과 국제적으로 「敵」 概念 설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앞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한다).

2. 브레즈네프 리더쉽

브레즈네프 體制는 코시킨-브레즈네프의 2인 체제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體制는 1965년 改革의 推進을 어렵게 했다. 즉 코시킨의 미시적 經濟改革은 보수적인 브레즈네프와 黨 官僚들에 의해 霧散되었다. 1970년 이후 브레즈네프의 권력 강화는 사실상 의미있는 改革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그의 당간부에 대한 信賴 정책은 엘리트에 혁신적 요소의 도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1965년 經濟改革의 失敗 이후 브레즈네프 정권은 농업 部門에 대한

投資의 증대, 國防費에 대한 투자에 힘썼으나 農業部門의 저조한 結果는 蘇聯 經濟를 더욱 악화시켰다. 公業부문의 경우 역시 보수적 조직 개편의 연속을 보였으나 커다란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는 한편으로 中央政府의 지원금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蘇聯 國民들에게 名目的 賃金の 상승등을 통해 가상 通貨量의 증가를 가져왔다. 蘇聯 市民들은 물자의 不足에 반비례하는 쓸 데 없는 지폐의 蓄積을 감수해야 했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중반 이후 惡化되는 브레즈네프의 건강은 意思決定의 遲延, 執行의 불철저, 엘리트 사이의 意見의 대립등을 초래하였다. 특히 스탈린의 大肅清 후 등장한 “브레즈네프세대”의 노화 現象은 蘇聯 정치체제의 경직성을 심화시켰다. 이는 앞서 言及한 이데올로기의 危機-즉 새로운 課題의 設定의 어려움-와 함께 蘇聯의 정치 현실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소련공산당의 엘리트도 이러한 와중속에서 現實에 대한 認識을 중심으로 상당한 분화 現象을 보였다. 대체로 蘇聯의 엘리트들은 소수의 改革派, 순수이데올로그, 개입파등으로 나뉘어졌다. 改革派는 蘇聯의 政治·經濟 現實에 직면하여 根本적인 改革을 주장하였다. 순수이데올로그는 黨의 役割을 이데올로기의 주도에 국한하고 경제와 행정으로의 몰입을 반대하였다. 또한 개입파는 正統스탈린주의자들로 黨의 경제개입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엘리트들 사이의 意見對立은 새로운 정책의 樹立을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엘리트들의 意見 차이는 곧바로 엘리트들 사이의 鬭爭 樣相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엘리트들의 자기 保護本能에 의해 사회에 대해서 内部的 分裂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利益 保護의 차원에서 사회에 독자적 세력의 등장을 배제한 것이다.

3. 소련사회의 정치적 특징

蘇聯社會의 특징은 한마디로 극단적인 정치적 疏外에 따른 “私人化”현상, 體制의인화 현상, 體制依存的 및 榨取的 현상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1950년대 중반부터 蘇聯 사회내의 주요한 정치적 발전의 하나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漸進的인 권위의 喪失이었다.

生産 勞動이나 공식적인 정치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無關心도 점차 증대해 왔다. 그들의 관리인이나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信賴는 점차 감소해 왔다. 1970년대에 들어와 蘇聯 시민들은 生産組織이나 그들의 지배자들에 대한 批判에까지 무감각할 정도로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팽배해졌다.

蘇聯의 많은 사람들은 계층과 職業에 관계없이 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참여나 기여에 대한 무력감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Literaturnaia Gazeta의 한 독자는 그의 무력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수 차례에 걸쳐 國家 利益을 위한 努力이 실패하자 “나는 이제 現實主義者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沈黙은 결코 失手하지 않는다’라는 格言을 따를 것을 재삼 다 짐했다”라고 하였다.²⁶⁾

政治 疏外와 官僚化는 불가피한 관계에 있다. 브레즈네프 시대는 스탈린 이후 잠깐 살아났던 脫官僚化 움직임이 사라진 이후 사회에 대한 官僚的 통제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다.

官僚的 통제는 정치참여의 의미를 喪失하게 하였다. 그러나 蘇聯의 정치 소외는 正統的인 “고독한 群衆”스타일의 소외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달랐다. 서구형 정치소외는 사회가 국가로부터 독자적 領域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활동과 情報, 개인의 참여에 대한 興

味를 상실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개인의 독자적인 社會 領域에서 분화된 자기 영역에 종사하면서 구태여 政治에 대한 關心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狀況을 말한다.²⁷⁾

이에 반해 蘇聯의 경우는 그 양상이 아주 복잡하다. 한편으로 蘇聯 市民들은 정치적 참여를 排除당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日常生活 자체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官僚에 의해 동원을 강요당하는 狀況이다. 이는 한편으로 의제적 무관심과 동시에 生存을 위한 정치적 관심을 堅持해야 한다는 矛盾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蘇聯 市民들은 정치적 관심과 知識을 意圖적으로 追求해야 生存에 도움이 되며 또한 官僚的 동원에 의해 선택의 여지없이 정치적 관심을 자극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실제 정치적 參與를 制約받고 있다.

蘇聯 市民들이 갖고 있는 상호모순적 葛藤은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關係를 그들의 개인적 利益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는 形態로 나타난다. 官僚的 통제 속에서 모든 일들이 官僚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사람들의 行動의 선택은 그들의 정보와 人的 關係를 자신들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現象은 달리 표현한다면 체제의인화 現象이라 말할 수 있다. 체제의인화 現象이란 모든 사람들이 共同體의 일원으로 개인의 私益을 초월한 倫理·責任意識을 상실하고 체제를 각자의 利益의 달성을 위한 手段으로 이용하는 狀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의 체제 악용 可能性은 蘇聯의 경우 이외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蘇聯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체제의인화 現象의 蔓延度가 아주 광범위하여 계급 계층을 초월하고 있다는 점과 그 기간이 長期化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체제의인화 現象은 蘇聯 사회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私的제도—家族, 親舊, 親舊의 親舊, 愛人—등의 역할이 公的 영역에서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제2 경제 등 非公式·非合法的 公共생활의 영역의 확대이다. 셋째 階級の 上下를 불문하고 국가나 公共利益을 무시한 직위의 濫用이다.²⁸⁾

蘇聯 社會의 특징중의 하나는 거짓말이 제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利益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獲得과 정보의 獨占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개인들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호 각자의 정보를 보호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강요하게 된다.

私有財産의 증가 또한 브레즈네프 시대의 결과였다. 공식적으로 蘇聯은 私有財産制度를 부정해 왔다. 그러나 브레즈네프 시대에 이르러 계속되는 농업정책의 失敗는 個人營農의 범위 擴大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 대표적인 예는 1977년 憲法에 인민의 개인영농토지·所有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와 집단농장들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條項의 신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蘇聯에서 家族의 기능은 스탈린 死後까지 크지 못했다. 그것은 家族이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브레즈네프 시대 家族의 機能은 완전히 반복되었다. 家族은 公的 영역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보충해 주는 場所로 변하였다. 公的 영역의 가치 기준과 가족내에서의 가치 기준과의 격차가 심화되어 公的 가치의 有名無實化를 초래하였다. 궁극적으로 가족은 국가에 대항하는 제도의 상징으로 전환하였다.

이의 延長으로 친구의 개인적 가치가 증대되었다. 蘇聯에서 친구의 의미는 특수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후진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친구의 의미에 비슷한 現象이 출현하였다. 즉 蘇聯에서 친구란 감정적으로 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면서 서로 情報를 교환하여 개인의 利益의 극대화를 위해 돕고 있다.

이는 집단주의를 指向하는 사회주의의 構造속에서 쉽게 용납될 수 있는 성질이어서 더욱 擴散되어 갔다. 그러나 실제 집단주의가 目標로 하는 근대적 가치 즉 모든 사람들의 平等한 기회부여와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것은 近代的 가치 指向이 아니라 前近代的 소규모 그룹 利益의 追求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社會構造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첫째 개인의 정치적 원자화 現象이다. 개인들은 전체적 利益을 고려하기 보다 각자 利益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關心은 자기 利益 確保에 국한되어 정치적으로 橫的 연계가 결핍된 사회 組織을 招來한다. 이는 정치적 즉, 투입과정에 대한 關心보다 이미 결정된 정치적 범주 內에서 行政過程에 대한 關心의 증대가 이룩되며 이는 곧 정치와 행정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정치의 行政化 現象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치적 원자화는 다시 정권에 대한 惰性的 服從을 誘發한다. 개개인은 자신들이 構築한 이익 확보 기제가 작동하는 한 전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된다. 즉, 惰性的으로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국제적으로 政權漂流의 특징은 「敵」 概念 설정의 어려움이다. 蘇聯 사회주의는 그 출발부터 극도의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²⁹⁾ 이론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필연적 충돌과 相互 불관용적 전제와 狀況적으로 자본주의의 基盤이 허약한 蘇聯의 사회-경제적 構造 및 蘇聯이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蘇聯 사회의 상대적발전과 1945년 이후 東歐의 형성과 제3세

계에 사회주의 국가의 登場은 蘇聯의 상대적 지위를 高揚시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전과 같은 양대진영론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은 核武器의 등장이었다. 核武器의 대량 확살능력은 이데올로기의 상충성을 超越하는 人類 生存의 문제였다.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은 이러한 狀況에서 傳統的 이데올로기의 입장과 核武器의 현실과를 調和하려는 高육책이었다.³⁰⁾ 즉 그는 제3세계에서의 민족해방등 革命 움직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초강대국 차원에서 核武器의 調整을 통한 평화공존을 주장하였다.

후르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을 위시하여 蘇聯 사회의 주요 동원 手段이었던 「敵」 概念의 설정은 구조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브레즈네프 시대에 들어와 가속화되었다. 특히 1970년대 나타난 美·蘇의 데탕트는 核武器에 대한 相互 불신의 해소 뿐 아니라 蘇聯과 동구권의 경제적 난관을 데탕트를 통한 西歐 資本과 技術의 도입으로 解決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에 따라 西歐의 영향은 蘇聯·東歐 사회에 크게 미치게 되었고 이는 의례적으로 자본주의라는 「敵」 概念의 설정이 現實과 크게 유리되는 現象을 초래하였다. 「敵」 概念 설정의 어려움은 정권과 사회와의 간격을 더욱 擴大하는 觸媒劑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政權漂流은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와 現實의 격차, 엘리트의 무기력과 분열, 사회구조의 共同體 의식의 파괴, 국제적으로 敵概念 설정의 어려움등에 의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漂流 現象은 傳統的인 正統性 概念이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現象이다. 즉 사회의 구성원이 개인의 利益을 극대화하는 메카니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당 水準의 物質的 기반이 축적된 近代的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적 成就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政權漂流 概念은 정권의 안정의 성격 규정에 있어 表面的 안정

이 어떠한 構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세분화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의 概念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브레즈네프 정권의 안정과 正統性은 이렇게 볼 때 심각한 再規定을 받아야 한다. 단순한 西歐式 概念의 적용이나 극단적인 蘇聯的 특수성-문화 등-을 強調하는 사고는 단편성을 謀免할 수 없었다.

政權漂流 概念의 설정은 어느 時點에서 蘇聯 體制의 改革이 불가피하게 되며 누구에 의해서 시도되어야 하는가와 改革의 根本 문제와 장벽이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방향을 提示할 수 있다.

政權漂流로부터의 단절의 時點은 개인의 體制擄取가 더 이상 불가능하여 體制 擄取의 결과 否定的 體制 認識 즉 體制의 중요성을 擄取의 극한적 狀況에서 相互인식하는 時點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體制 擄取는 공동의 과멸을 招來한다는 공동 과멸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사회로부터 自發的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경우 變化의 主體는 엘리트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앞서 지적한 蘇聯 사회의 近代的 성격 가정과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엘리트 內部가 이미 분열된 狀況에서 일부 改革 그룹들은 사회 疲弊에 힘입어 改革의 필요성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보수 그룹은 疲弊된 사회 전반의 병폐와 體制 擄取의 안일성에 빠져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心理的 構造에 의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改革 과정에서 엘리트내의 분열을 극복하여 보수 세력을 제거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사회세력성격의 극복과 轉換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은 보수세력이 사회전반에 현재하는 체제의존적 性向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改革

의 根本的 限界는 어떻게 광범위한 체제의존적 性向을 변화시키는 가에 달려 있다.

政權 漂流가 提示하는 改革 과정에 관한 또 하나의 주요 시사점은 改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수한 豫想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 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政權漂流의 특징은 사회전반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문제 파악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改革 프로그램은 항상 우발적 상황 展開에 의해 크게 영향받을 공산이 큰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격과 방향을 分析해 보자.

Ⅲ. 고르바초프 시대의 개혁 동향

A. 고르바초프의 개혁

앞서 지적되었듯이 개혁 以前の 政權의 性格 즉 이 경우 브레즈네프 政權의 漂流가 개혁의 內容과 進行에 어떠한 影響을 주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進行된 蘇聯 改革의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敘述에 이어 政權漂流와의 關係를 分析한다.

고르바초프가 권좌에 앉은지 5년 이상이 흘렀다. 蘇聯 바깥에 있는 그 누구도 페레스트로이카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그것의 등장 可能性을 豫測할 수 없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초래한 最初의 충격과 놀라움은 그것의 성실성과 심각성, 그리고 그것이 蘇聯의 주기적인 개혁 패턴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등에 관한 論爭을 유발시켰다. 時間이 흐르자, 蘇聯의 새로운 주도적 행위(initiatives)에 따른 政治的-國際的 變化들은 관심의 초점을 개혁의 지속성과 성공도로 돌렸다. 페레스트로이카는 非革命的 方法으로 革命的 性格의 急進的 變化를 일으킴으로써 政治, 經濟, 社會 부문들의 漂流를 종식시키려는 蘇聯 엘리트들의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는 變化를 主導할 서로 다른 세 담당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권력장악 엘리트, 대중의 주도권, 半엘리트·半대중적 주도권이 그것이다.

상이한 세력들의 후원 하에서 變化가 일어나는 理由는 그 자체로도 흥미있는 理論的 問題이나 이 論文의 限界를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變化의 주도권을 決定하는 類型은 近代化가 導入한 方法과 近代化의 多樣한 結果들에 밀접한 關聯이 있다는 것을 言及하는 것으로 充分하다.

蘇聯의 近代化 類型은 目的論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강력한 엘리트주의적 類型으로 특정지워질 수 있다. 목적론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엘리트주의적 방침은 두가지의 중요한 政治的 結果들을 招來했다. 첫째는 이데올로기가 보다 강력하게 결속된 政治 集團의 出現을 可能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서, 政治權力集團과 脫 組織化·원자화된 대중들 사이에서 권력과 권위라는 차원에 있어서 소련 사회에 커다란 갭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그 結果 蘇聯 엘리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전의 기여로 인해서 새로운 政策과 效率性을 行使하지 않고서도 權力을 維持할 수 있는 以上으로 事態가 惡化되지 않는 한 權力을 계속 掌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共產黨이 推進해야 했던 改革의 아이러니를 部分的으로 說明해 준다.

近代化的 類型은 재구조화의 過程에 隨伴하는 課題의 性格을 決定한다. 모든 재구조화는 과거로부터의 急進的 離脫과 새로운 政治, 經濟 秩序의 性格 規定이라는 두 가지 課題를 要求한다. 강력한 엘리트주의적 방침과 그로 인해 蘇聯 社會의 모든 側面에 걸친 엘리트 政治權力의 確立은 過去로부터의 이탈이라는 課題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意味한다.

“불간섭(disintervention)” [더 적절한 용어가 마땅지 않기 때문에] 政治에 있어서 고르바초프가 어느 정도의 成功을 거둘 것인가가 페레스트로이카에 成功에 決定的인 要素이다. 이것은 건설적 파괴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課題와 關聯된 몇가지의 基本的 問題들은 아래와 같다: 變化에 대한 欲求에 있어서 엘리트 사이의 동의는 얼마나 강력한가? 반발은 어느 정도 강력한가? 最高 指導者가 政治 權力과 權威를 통하여 반발을

무마할 能力이 있는가?

새로운 秩序의 創出이라는 두번째 課題와 關聯된 重要한 問題들은 아래와 같다: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秩序의 內容은 무엇인가?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강력한 동의를 존재하는가? 指導者는 새로운 秩序가 要求하는 政策을 遂行할 明確한 戰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과 關聯하여 우리는 舊秩序가 사라지고 新秩序가 나타나는 過渡期를 상상해 볼 수 있다. 蘇聯의 경우에 우리는 政治 이데올로기와 聯邦體制와 같이 蘇聯에 固有한 體制로부터 도출되는 소련식의 몇몇 過渡政治的 側面들을 거론할 수 있다.

B. 政治 改革

먼저, 蘇聯이라는 狀況속에서 政治와 經濟間의 密接한 結合을 前提한다면 政治개혁과 經濟개혁 사이에 明確한 區分을 한다는 것은 큰 意味가 없다. 구별은 단지 분석적인 目的을 위해서만 意味가 있다. 리토원수가 언제인가 말했듯이 政治改革이란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바로 經濟改革이다.

政治개혁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과제들을 포함한다: 이데올로기의 再編成, 黨의 再編, 탈관료주의화의 분권화, 이데올로기적 사안이란 最終目的, 變化의 주기폭제, 現實을 分析하는 方法등의 設定을 包含한다. 共產主義를 성취한다는 意味에서 새로운 당 규율은 가까운 미래에 目標를 達成한다는 計劃을 포기했다.

先進 社會主義(developed socialism)란 概念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 概念에 대한 言及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고르바초프의 1989. 11월 論文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다.³¹⁾ 페레스트로이카가 先進 社會主

義의 많은 병폐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기에 있어서 先進 社會主義로서의 蘇聯 社會主義의 現段階를 정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어떤 명확한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현 단계는 발전도상의 사회주의(developing socialism), 先進社會主義로부터의 移行이라는 意味에서 理解될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社會主義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볼 필요가 있다.

變化를 위한 主 政治勢力이란 意味에서 볼 때 黨의 主導的 役割이 규정되어야 한다. 黨이 主導的 役割이라는 意味는 蘇聯 歷史에 있어서 時期에 따라 變化해 왔다. 원래의 意味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創出하고 結集해서 人民을 說得하는 黨의 役割이라는 것이었다. 스탈린 치하에서 그 意味는 歪曲되어서 黨이 行政的 問題에 간섭하거나 그 役割을 代行하게 되었다. 이것은 黨과 國家行政이 融合된 結果였다.

고르바초프가 黨의 役割에 관한 뿌리깊은 問題點들을 指摘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1920년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간섭을 통하여 社會를 관리할 여지가 많지 않은 狀況에서 이것을 더욱 명확한 用語로 定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黨이 오랜 期間 동안 社會를 統制해 왔다는 사실이 페레스트로이카의 唯一한 主唱者와 遂行者가 黨이라는 것을 意味한다는 點은 明白하다.

따라서 短期的으로 볼 때 黨은 페레스트로이카를 遂行하고 變化의 推進 過程에서 나타날 것으로 豫想되는 社會利益의 葛藤을 調整할 特殊한 과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窮極的으로는 왜 蘇聯共產黨만이 多様な 이해들을 조정할 唯一한 政黨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問題가 남는다.

階級鬭爭과 階級意識이라는 면에 있어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現實에 대한 엄격한 계급적 접근은 현 단계 소련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認識에 基盤을 두고 있다. 자슬라프스카야(T.

Zaslavskaja)가 시도한 것처럼 더욱 特화된 集團 접근법(group approach)이 계속적으로 採擇되고 있다.³²⁾ 社會葛藤의 本質은 階級的 觀點에서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複雜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國際關係에 관한 蘇聯의 觀點 變化는 더욱 顕著하다. 生存과 보편적인 人間主義的 目標가 가지는 階級鬭爭보다 더욱 強調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민주주의(demokratiia), 開放(glasnost), 社會主義的 多元主義와 같은 새로운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다.

民主化는 民衆 집중제의 집중주의적 性격을 희석시킴으로써 蘇聯 社會에 活力을 주는 것으로 理解될 수 있다. 社會主義的 多元主義는 獨立的으로 組織的-財政的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政治的 多元主義와 同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社會主義的 多元主義란 비록 蘇聯 社會의 多様な 利害들을 해결할 政治的 過程은 黨의 손에 限定되어 있지만 그러한 利害들을 인정한다는 性격이 강하다. 이런 意味에서 고르바초프가 비공식 집단(informal groups)과 그들이 여러 問題들을 토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言及했다는 事實은 흥미롭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일당하의 民主主義에 대한 立場은 1990. 2月 大統領制의 導入과 多黨制의 採擇으로 政治集團 分화과정은 가속화되었다.³³⁾ 개방(glasnost)은 그들 자신의 問題에 대한 情報를 외국에서 얻어와야 하는 蘇聯人民들의 情報依存을 緩和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으로써 開放은 情報에 대한 접근 機會의 확대를 통하여 官료들에게 압력을 가할 目的과도 聯關되어 있다. 초기 段階에 있어서는 開放과 社會主義的 多元主義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長期的으로는 社會次元에서 開放을 加速化할 경우 社會主義的 多元主義가 수용할 수 없는 民主化 擴大 要求가 증대할 수도 있다.

C. 당내의 변화

고르바초프가 權力을 잡은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서 人員 交替가 행해졌다. 1986년 제27차 당대회가 끝난이후 中央委員會 正위원 41%가 交替되었다. 4월 25일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은 中央委員會와 중앙회계위원회 위원중 110명의 사임을 滿場一致로 承認했다.

브레즈네프 時代의 政治局 委員들은 2명을 除外하고는 모두 交替되었다. 좀더 낮은 레벨에서는 1986년 6월 제19차 黨大會 직후의 당보고 및 선거운동(report-and election-campaign) 結果 5,602명의 당 지도자, 5,223명의 직장 서기, 3,257명의 초급 당조직 指導者들이 報告를 행하지 못했고 27명의 지구(obkom) 당서기들이 交替되었다. 1986년 3월 레닌그라드 지역 당 제1서기 솔로비에프가 人民 代表 選舉以後 사임함으로써 表面화된 것처럼 선거에서 낙선한 많은 당원들이 구제될 수도 있었지만 實際로는 모두 交替되었다.

더욱 중요하고 또한 선례에 없는 事實은 19次 黨大會에서 決議된 것으로서 民主的 過程을 定着시키려는 努力이었다.

그중 중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다.

- 1) 有權者는 각 選舉區에 複數 候補를 推薦할 權利를 享有한다.
- 2) 모든 수준의 高位 公職者의 任期는 5年 任期의 重任이 制限된다.
- 3) 黨職, 國家機關의 選舉의 投票는 秘密投票이며 특별히 選出된 選舉 委員會에 의해 統制된다.
- 4) 決定과 法律은 眞正으로 자유로운 討論을 거친후에 採擇되어야 한다.
- 5) 黨과 一般 有權者는 만일 그들이 選出한 公職者들이 任務를 滿足하게 遂行하지 못했을 경우 그들을 召喚할 權利를 享有한다.

黨機構와 關聯하여 고르바초프는 黨大會에서 다음과 같은 事項들을 提案하였다.

- 1) 당기구는 規模의 面에 있어서 크게 縮小되어야 한다. 適切한 減少規模는 明確하지 않다. 그것은 現在 水準의 1/3내지 1/2이 될 것이다.
- 2) 경제 部門의 당기구는 폐지될 것이다.
- 3) 당기구의 活動은 이데올로기-선전 部門과 조직-인사 部門에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黨 次元에서 最初의 變化를 위해 취해진 措置들이다. 이러한 措置들 중의 몇가지는 이미 遂行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당기구의 축소) 나머지는 새로운 法律이나 黨의 決定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985年 以後, 國家組織에 重大한 減縮이 가해졌다. 1988年 末에는 閣僚委員會의 3/4이 交替되었다. 1987년까지는 이미 國家機關의 部署, 委員會의 長들 83명 중 63명이 고르바초프에 의해 任命되었다.

閣僚委員會의 職員數가 縮小되었으며 閣僚會議의 소비에트課의 長은 경선을 통해 選出되고 있다. 閣僚委員會는 現在 새로 構成된 人民代表者會議(Congress of People's Deputies)에 責任을 지고 있다.

소비에트 體制의 改革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 중 가장 重要的 政治的 變化이다.³⁴⁾ 지금까지 소비에트의 機能은 흥내내기에 不過하다. 원래는 立法-行政機關으로 設立된 소비에트는 비록 흐루시초프가 官僚들에 對應할 目的으로 소비에트 體制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긴 했지만 스탈린 이후 오랫동안 中央 政府의 決定을 단순히 傳達하는 機關으로 전락했다.

새 헌법이 소비에트에 부여한 權利는 매우 廣範圍하다. 政府 行政

部門의 수반은 소비에트가任命한다. 소비에트는 行政 部門의 活動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國內-外交政策이 소비에트에 의해 討議될 것이다. 中央 委員會까지 이르는 黨 機構의 決定은 立法 소비에트에 의해 調査되어야 하며 法律化되어 政策으로 나타나기전에 變更될 수 있다. 黨과 소비에트의 融合은 兩機構의 聯合에 의한 決定이 不可能한 수준까지 制限된다.

그러므로 소비에트의 改革은 주로 두가지의 課題의 解決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社會가 官僚를 監督할 수 있도록 活性化시키는 것과 黨의 獨斷적인 간섭과 強制를 防止하는 것이 그것이다. 黨機構의 縮小와 關聯시켜 볼 때 고르바초프가 意思決定의 中心을 中央 委員會에서 人民代表者大會로 옮기려 하고 있음은 明白하다. 고르바초프의 判斷으로는 黨의 權威가 매우 下落하고 있는 狀況에서는 社會部門의 積極적인 支援과 參與없이, 그리고 變化에서 오는 고통을 나누지 않고는 새로운 政策들을 推進하는 것이 不可能하게 보일 것이다.

理論적으로는 고르바초프는 黨없이도 國家를 運營할 수 있다. 黨은 軍隊와 KGB에 대한 統制手段을 喪失해 왔다.

또한 最近에는 最高 소비에트(supreme soviet)의 權威가 黨의 權威보다 훨씬 強力한 것 같다. 이러한 傾向을 잘 나타내어주는 한 예로 작년 7월의 쿠즈바스 탄광 파업사태를 들 수 있다. 최고 소비에트는 자신이 국가 전역에 걸친 狀況에 完全한 責任을 지고 있으며 政府와 國家機關의 行動을 監視하고 있다고 宣言하면서 國民的 輿論을 환기시킴으로써 鑛夫들을 무마하는데 큰 效果를 보았다. 鑛夫들은 黨이 提示한 約束을 信賴하지 않았으며 그럼으로써 새로 誕生된 機關의 權威를 認定했다고 전해진다.

地方의 경우 經濟資源과 企業에 대한 地方 소비에트들의 權利가 크게

伸張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經濟的 自立이 中央政府 혹은 共和國 政府로부터 地方 소비에트에게 주어질 것이다.

소비에트의 改革과 關聯된 몇가지 問題가 있다. 먼저, 고르바초프가 黨과 最高 소비에트 兩 機構에서 最高의 地位를 차지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原理에 違背된다. 즉, 短期的으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어느 한쪽으로 힘의 均衡을 옮김으로써 反對 勢力을 抑制할 힘을 集中시킬 必要가 있다는 것이 合理的이다. 하지만 長期的으로는 소비에트 體制에서의 意思決定은 議會에 대한 黨 수뇌, 黨 全體의 地位와 相應하는 次元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地方에서는 더욱 심각한 問題가 야기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주요 과제가 그 決定의 수행인 반면 中央의 重要한 課題는 意思決定으로서 黨과 最高 소비에트의 分離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地方에서는 黨과 소비에트의 수뇌가 重疊되기 쉬우므로 地方 엘리트들의 광범위한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黨의 支配가 招來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傾向은 새로운 行政組織 없이 地方黨의 새로운 政策을 遂行할 수 있는 唯一한 응집세력일 경우 더욱 강화된다.

이와 關聯하여 人民代表의 87%가 蘇聯 共產黨의 黨員이라는 事實을 注視하자. 最高 소비에트에서는 이 比率이 약간 더 높아진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非共產主義的 意見이 반영될 可能性이 있다.

黨의 役割과 地位는 1990년 3月 採擇된 大統領制와 多黨制의 導入으로 이 문제의 해답은 더욱 分明해졌다. 蘇聯大統領은 新憲法 아래에서 막강한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 그는 內閣의 構成과 解體, 司法府와 檢察의 주요 직위에 대한 任免權, 法律案의 提案과 署名權, 國軍統帥權, 宣戰布告權과 對外的으로 國家 代表權 등을 享有한다. 특히 大統領은 蘇聯邦 最高 會議에서 通過된 法律의 再審議를 要請할 수 있고 最高會

議가 2/3이상으로 再審議를 通過시킨 이후에도 蘇聯邦 人民代表者會議나 國民投票에 回附하여 이와 對抗할 수 있게 되어 있다.³⁵⁾ 또한 蘇聯邦 最高會議의 聯邦會議와 民族會議 간의 葛藤이 調整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會議의 構成을 提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國家의 大統領制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制度로 少數民族間的 關係를 조정하는 大統領 直屬의 聯邦委員會(Council of Federation)와 主要政治 노선을 검토하는 大統領委員會(Council of President)의 採擇을 들 수 있다.

蘇聯 大統領의 職務 遂行에 대한 問責은 人民代表者會議의 2/3이상의 贊成에 의해 採擇될 수 있으며 犯罪을 行한 경우 蘇聯邦 人民代表者會議가 選出한 51인으로 構成되는 裁判所에서 審理된다.

蘇聯이 이와 같은 강한 大統領制를 採擇하게 된 背景과 그 意味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理由는 1985년 이래 시작된 民主化, 글라스노스트가 초래한 政治權力의 分散과 山積한 經濟改革과의 葛藤이다. 改革의 推進을 위해 필요한 強力한 權限과 民主的 原則과의 調和가 강력한 民主的 大統領制로 낙착되었다.

實際로 過去 5年間 蘇聯의 權力構造는 權威主義 體制에 依存할 수 없는 狀況에 놓여 있다. 특히 스탈린이라는 극단적인 무자비한 독재자의 명령은 소련 엘리트와 市民들을 항상 괴롭히고 있으며 이와 정반대로 브레즈네프와 같은 무기력한 指導者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葛藤은 蘇聯 政治엘리트로 하여금 “強力한 손(獨裁者)”와 “強力한 行政府(制度化)”를 구별토록 하였으며 強力한 共產黨, 內閣, 人民代表者會議의 세 곳 사이에 흩어져 時間的 소모는 물론 權力 行使와 이에 대한 窮極的 責任의 소재가 不明確하게 되었다. 蘇聯共產黨內的 페레스트로이카 理論家인 야코블레프는 이에 대해 過去 數年間 蘇聯은

“集團的 無責任性”下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³⁶⁾

그러나 蘇聯의 問題는 改革과 近代化라는 이름 아래 더 이상 獨裁體制나 行政府의 強力한 손으로 전락하는 可能性을 最大限 방지토록 하는데 주된 關心을 쏟도록 하였다.

따라서 大統領制 新設에 관한 蘇聯최고회의의 討議 過程을 보면 大統領制 採擇 자체에 대한 反對는 거의 없었다. 反對하는 사람들의 構成과 그 內容을 보면 대체로 大統領의 보나파르트화를 우려하는 地域間 代表그룹—엘친, 아라나세프 등 急進 改革者와 발트 3國 등 少數民族 代表者들이었다.

地域間 代表들은 大統領制의 必要性을 認定하면서도 강한 大統領制에는 강한 議會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들이 말하는 강한 議會는 民主的 經驗이 쌓이고 政黨制度가 確立된 것을 意味한다. 民主的 經驗이 없는 構造的 脆弱性이 있는 議會가 강한 大統領에 의해 꼭두각시로 전락될 可能性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複數·秘密 投票制를 고집, 選舉의 延期를 主張하였다.

그러나 이들 主張의 이면에는 아직 全國的 政黨組織을 이룩하지 못한 그들의 立場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들은 大統領 選舉를 통해 全國的으로 政黨組織을 構想하고 있으며 그들의 후보를 내세워 共產黨과 비교하여 政治的位相을 定立하려는 意圖를 노정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지역간 代表들의 立場에 대해 강한 批判을 가하면서 그들을 “반대그룹”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발트 3국의 代表들은 그들의 參與가 獨立的 地位 確保에 影響을 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新 憲法은 大統領의 연방위원회가 民族間 問題를 討議토록 하고 있고 聯邦體制 維持의 義務를 大統領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발트 3국의 聯邦大統領制 贊成은 그들의 地位에

直接的 影響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³⁷⁾

이와 關聯해 발트 3국들이 大統領制 採擇 직전 왜 그들의 獨立을 宣言했는가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大統領制 採擇의 意味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蘇聯 엘리트들 사이에 改革의 強力한 推進의 불가피성에 대한 合意의 表現이다. 審議 過程에서 나타난 共通된 意見들은 最高會議中心의 改革 推進은 너무 느리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급속한 改革 조치 없이는 모두 몰락할 수 밖에 없다는 絶박성을 認識하고 있다.

둘째 制度的으로 共產黨과 國家의 분리 과정의 가속화 내지는 완결이다. 지금까지 權力의 制度的 存在 속에서 改革 政策의 內容은 一貫性이 없거나 執行 과정에서 크게 왜곡되어 왔다. 그 背景에는 共產黨 依存的 行政 構造를 일시에 脫皮할 수 없었던 딜레마가 있었다. 共產黨을 改革해야 하면서 短期的으로는 共產黨이 위주로 된 行政組織의 維持가 불가피했다. 그것은 이에 대체할 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大統領制의 導入은 새로운 行政體制의 導入을 통해 共產黨의 行政으로부터의 결별을 가속화할 것이며 共產黨의 役割은 의회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셋째 이와 關聯 주목되는 것은 고르바초프와 共產黨간의 關係이다. 고르바초프가 한편으로 共產黨을 改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議會에서 그들에게 依存하게 되는 경우 그가 共產黨의 당수로 유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 특히 野黨 概念과 組織이 定着되지 않은 狀況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短期的으로 고르바초프가 黨을 떠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大統領制의 採擇은 이 이외에도 어떤 意味가 있을까? 代表들은 黨의 命令과 人民의 要求중 어느것을 더욱 신중히 생각하겠는가? 黨의 統一과 民主的 集中制의 葛藤이 含蓄하고 있는 意味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現實的으로 黨의 役割은 무엇인가?

소비에트의 改革과 關聯된 다른 問題로서 脫集中化의 問題가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特徵적인 모습의 하나로서 소비에트의 改革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脫集中化가 있다. 問題를 複雜하게 만드는 것은 脫集中化가 蘇聯의 聯邦主義 構造와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經濟的 自立과 아울러 政治的 脫集中化는 발트 3국에서 억압된 民族主義의 감정이 表出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蘇聯의 聯邦體制에 매우 심각한 求心的 影響을 끼칠 것이다. 구성 공화국들의 經濟-政治-地理的 狀況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最適의 脫集中化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 表出되고 있는 民族 問題에 따른 심각한 問題의 하나로서 黨의 統一性에 대한 潛在的 危險性을 指摘할 수 있다. 이것은 共和國의 共產黨들이 共和國이나 中央黨의 要求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하라)

D. 經濟的 改革

經濟的 改革과 關聯된 주요한 理論的 問題들로는 社會主義下的 所有權, 計劃과 그에 關聯된 經營構造의 役割, 인센티브 시스템과 社會主義的 市場의 問題 등이 있다.

蘇聯 經濟의 基本 構造는 스탈린 하의 第1次 5個年 計劃期間중에 形成되었고 브레즈네프 時期까지 거의 변하지 않은 체이다. 스탈린 식의 經營構造는 高度의 計劃 經濟體制로 특징지워진다. 모든 經濟的 決定은 中央에서 이루어져서 具體적인 目標과 方法까지 첨부된 채 地方으로 下達되었다. 그러므로 地方과 企業의 特性은 무시되었다. 質的 水準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목표량 달성에 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이것이 社會主

義의 發展에 끼친 重要的 結果들 中的 하나가 엄격한 국유화와 計劃體
制가 社會主義의 決定的 本質中的 하나라는 認識이었다.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 말하자면 과도한 集團主義(Collectivism)가 作
業에 있어서 個人的 創造性을 몰살해 버렸고 職業保障, 教育 기타의
社會福祉 方面에서의 지나친 平等主義가 社會에 대한 依存性을 增加시켰
다. 사람들은 더욱더 政治的으로 무기력해져 갔으며 “狀況 依存的(situ-
ation-exploiting)” 혹은 “體制依存的(system-exploiting)” 심성이 강해
져서 他人의 勞動이나 社會, 國家등에 依存하는 性向이 나타났다. 고르
바초프는 그러한 害惡을 바로잡기로 決定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르
바초프는 計劃經濟 下에서는 私的 經濟活動의 擴大가 社會主義 原理와
矛盾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³⁸⁾

고르바초프는 “必要에 따라서 누구나”라는 原理가 社會主義에 適用될
수 없다고 宣言했다. 그것은 共產主義 社會의 原理이다. 대신 그는 人
民들은 勞動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體制를 기만하거나 社會에 공헌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으려는 사
람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具體的 措置들이 취해졌는가? 計劃經濟를 變更
하는 것은 매우 複雜한 過程이다. 두가지의 길이 모색되고 있다: 첫째,
中央計劃의 領域을 縮小하는 것, 둘째 非國家 經濟活動을 擴大하는 것
이다. 첫번째 方法은 下部機關에 대한 中央 權力의 脫集中화와 國家
企業의 自律性 增大를 包含한다. 두번째 方法은 市場의 導入, 價格, 財
政, 課稅 등 그와 關聯된 精密調査에 基盤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中央計劃의 役割은 科學技術 內部構造(Infrastructure)環境
保護등과 社會保障, 財政, 課稅, 독점의 規制 등에 關聯된 課題에 制限
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下部機關에 대한 中央權力の 脫集中화와 關聯하여 “共和國의 經濟 自立經營”이라는 題下에 현재 討論이 進行되고 있다. 이 主題는 民族問題의 暴發과 密接히 關聯되고 있어서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

政治的 意味에서 經濟 經營의 脫集中化는 단순히 地域 發展의 不均衡 深化를 招來할 뿐만 아니라 蘇聯의 聯邦體制에 매우 파괴적인 結果를 끼칠 수도 있다.

中央에 의해 強力하게 統制되던 過去의 體制가 地方의 利害를 무시하고 단지 中央의 利害만을 고려했다는 事實은 말할 필요도 없다. 過去에도 후르시초프의 國民經濟會議(sovnarkhoz) 改革처럼 비록 큰 基本的 變化는 없었지만 狀況을 好轉시키려는 몇가지 시도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中央에 의해서 利潤과 剩餘를 收奪당함으로써 生産的인 地域이 피해를 받고 犧牲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최근 몇달동안 經濟가 다소 高度로 發展된 발트3국에서 自律性에 대한 要求가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經濟 分野에서의 討論은 經濟活動의 移轉, 聯邦-共和國間 豫算 關係의 再編, 經濟計劃의 再編 등을 주요 主題로 하고 있으며 이는 共和國間 豫算關係의 재편 경제계획의 재편, 등을 주요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국의 경제계획에 더 많은 柔軟性和 自律性을 부여하고 全聯邦 次元의 計劃에서 共和國의 計劃이 차지하는 比重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연방이 共和國들에 대한 最終的인 統制權을 保有한다. 예를 들어 共和國들은 자기들의 領土內에서 土地와 天然 資源을 소유하고 管理할 權利를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中央은 土地와 資源의 사용에 대한 聯邦 次元의 原則을 정의할 權利를 향유하며 이는 資源의 管理라는 점에서 共和國의 自律性을 弱화시킨다.

共和國 以下の 次元에 대해 脱集中化는 現在로서는 明確하지 않은데 그 理由는 地方 소비에트의 選舉가 올해 봄으로 豫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성격이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最終的인 決定은 共和國의 權利에 대한 憲法의 改正과 함께 이미 最高 소비에트의 가을 회기에 이루어졌다. 발트해 연안 공화국들에게 더 많은 經濟的 獨立을 부여한 法律에 대한 임시 승인이 보여준 바와 같이 비록 政治的 自律性은 制限되겠지만 共和國의 經濟的 힘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國家企業의 自律性 擴大를 위해 1987년 7월 國家企業에 관한 法律³⁹⁾이 通過되었는데 이것은 計劃과 經濟責任에 대한 企業의 權利를 신장시켰다. 貸出, 財政, 外國과의 經濟交流를 強化하고 政府機關의 “명령”을 弱化시키기 위해 法律은 다시 制定되었다.

社會主義 下에서 所有權을 多樣化시키는 方便으로서 協同組合과 賃貸借 制度를 導入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88년에 公式的으로 協同組合이 부활되었다. 現在 協同組合의 1/3은 서어비스 分野에 關聯된 것이며, 1/5은 소비재 생산을, 1/10은 公衆給食을 담당하고 있다. 蘇聯의 國民 總生産에 協同組合이 寄與하는 比重은 겨우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蘇聯 經濟가 아직도 全般的으로 計劃體制의 統制 아래에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協同組合에 관한 法律은 賃貸借에 관한 法律과 밀접한 關聯性-依存性이 있다. 1989년 8월 최고 소비에트 제1차 회기에서 農業-産業 賃貸借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었다. 賃貸借는 多樣的 非國家 經濟單位들을 허용하면서 國有制를 公式的으로 維持하는 法律的 기제이다.⁴⁰⁾ 하지만 그 법률의 具體的인 內容은 아직 明確하지 않다. 過去의 論議에 비추어 볼 때 國家 所有物, 協同組合 혹은 餘他的 社會企業, 組織뿐만 아니라 土地와 天然資源도 賃貸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

다. 貸貸借의 主體는 國家, 共和國, 地方 소비에트, 國營農場, 集團農場, 協同農場, 個人 모두를 包含한다. 個人도 자신들의 재산을 貸貸借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들의 貸貸借 價格이 어떻게 부여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⁴¹⁾

農業政策은 蘇聯의 指導者들에게 성가신 問題이다. 고르바초프의 選擇은 土地貸借를 獎勵함으로써 農業 部門에 대한 國家의 支援을 減少시키자는 것이 分明하다. 금년 3월 中央委員會 全體會議에서 農民이 땅의 어머니라는 것이 재천명되었다. 위에 言及한 貸貸借法에 따르면 두 가지 形態의 貸借가 可能하다.⁴²⁾ : 內部 貸借 : 家族-個人 貸借, 貸借 年限은 50년까지 可能하다. 前者는 集團農場이나 國營農場이 그 下位 集團과 締結하는 契約을 意味하며 後者는 集團農場이나 國營農場과 勞動關係를 맺지 않은 個人이 土地나 다른 財産을 貸借하는 것을 意味한다.

貸貸借와 關聯하여 今年 1월의 中央委員會 전체회의는 Gosagroprom을 廢止하고 그 대신 國家食糧구매 위원회를 구성하였다.⁴³⁾ 價格 策定과 課稅에 관하여 政府는 脫集中化의 進展을 約束하였다.

蘇聯의 農業은 國家의 補助를 받아왔다. 1980년대에 農業分野의 稅收는 生産費의 1/3이하를 밑돌았다. 여러 形態로 農業生産에 支出된 國家 補助金이 1982년에는 84%, 1988년에는 70%를 차지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가 進行되면서 共産品과 農産物 소매가에 支出된 補助金은 共産品 價格의 上昇에 따라 實體的으로는 增加하였다. 農産品에 대한 價格 改革은 1990년 1월에 現實化되었다. 이런 理由로 말미암아 基本財에 대한 國家의 價格負擔은 增加할 것이며 이것은 5個年 計劃期間 동안 變化하지 않을 것이다. 빵, 어류, 아동용 食品의 小賣價格은 다음 2년 동안 동결될 것이다. 基本的인 問題는, 工業-都市 部門에 급격한 價格 變動을 招來하지 않으면서 價格調整을 통해 國家豫算의 負擔을 줄

이고 農業生産을 促進시키는 方法에 關한 것이다.

價格, 稅金, 信用去來의 米시경제학적 變化는 그 양상이 매우 緩慢하다. 工業價格體系의 變化는 1990년 1월로, 農業價格體系의 變化는 1991년까지로 豫定되어 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의 進進양상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은 價格 改革에 대한 政治的인 合意뿐이다.

全般的으로 經濟的 페레스트로이카의 實行은 어려운 것이었다. 協同組合 運動, 貸貸借法, 國家企業에 대한 官僚들의 反撥은 거세었다. 現在 1조루블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는 累積된 財政赤字는 더욱 加重될 展望이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의 壓力을 強化시키게 될 것이다.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으로 인해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대다수 人民들의 支援을 維持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蘇聯 國民總生産의 增加는 平坦하지 못하다. 1987년에는 2.3%, 1988년에는 4.4%, 그리고 昨年 上半期の 增加率은 前年 對比 3.5%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률이 감안된다면 이 통계들 역시 실질적인 성장율을 반영하지 못한다.⁴⁴⁾

그러나 지금까지의 經濟改革은 政治改革의 미진에 따라 일관된 制度改革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執行過程에서 많은 制約을 받아 실효가 거의 없었다.

1990년 3월 私有財産制의 採擇은 고르바초프의 大統領 就任과 더불어 蘇聯經濟 改革上 유례없었던 劃期的인 일이었다. 동법은 개인이나 그룹의 生産수단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⁴⁵⁾ 이와 함께 토지에 관한 法도 個人의 土地 私有를 保障하고 있다.⁴⁶⁾ 生産手段에 대한 사유의 認定은 이로써 지난 5년 不均衡하게 採擇되었던 經濟政策을 사실상 종막을 고하게 하고 보다 體系的인 經濟改革의 推進이 豫想된다.

私有財産制의 認定은 國家計劃 經濟의 比重의 점차적 약화를 의미한다. 國家計劃의 比重이 어느 정도에서 낙착될 것인지의 決定은 蘇聯經

濟體制의 性格規定에 큰 影響을 줄 것이다. 同時에 私有財産制의 導入이 實質的 效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租稅制度의 改正과 個人企業의 法的 지위를 강화하는 補完措置가 隨伴되어야만 한다.⁴⁷⁾

IV. 結論的 觀察

페레스트로이카의 政治·經濟改革을 政權漂流와 聯關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指摘할 수 있다.

첫째 改革의 主體가 엘리트에서 올 수 밖에 없다는 事實이다. 둘째, 社會勢力이 원자화되어 조직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엘리트의 개혁 주도에는 엘리트들의 반대 세력을 제어하기 위한 指導者의 政治勢力 構築이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에 改革體制 整備 過程에 많은 時間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세째, 社會勢力이 政權과 유리된 狀況에서 改革勢力이 改革 推進에 따르는 問題를 說得하기 어렵다는 點이다. 社會의 構成員들은 全體 利益에 관한 關心보다는 各自의 利益 確保를 위한 要求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社會가 政權에 유리된 상태가 參與로 還元되기 위해서는 強力한 變化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네째 改革의 內容으로 政治改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共産黨의 徹底한 經濟·社會 統制는 政治 構造의 先決的 再編없이 改革 推進이 不可能하다는 點이다. 특히 改革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共産黨의 權力 포기가 없이는 社會 構成員에 대한 呼訴力을 喪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급작스런 共産黨의 崩壞는 곧바로 無政府 狀態를 誘發할 可能性이 높다. 따라서 한편으로 社會勢力을 活性化하면서 보수 엘리트를 규제하는 政治變化를 追求해야만 한다. 이것이 곧 蘇聯의 소비에트 改革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政治改革 推進 過程에서 經濟改革은 事實上 一貫的으로 推進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政治改革 期間의 經濟改革은 部分的이고 妥協的이고 상호 矛盾되는 것이 됨이 不可避하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改革의

未進陟은 政治改革 整備 以後 經濟改革의 一貫的 推進의 必要性을 提高 시켜 준다.

여섯째 엘리트 次元과 大衆 次元, 中央과 地方과의 改革 進行의 현저한 二重性이다. 漂流하는 政權과 社會와의 關係 때문에 엘리트 次元의 改革이 先行되지만 社會 次元의 地方 次元의 改革은 상당한 混亂과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現在 蘇聯의 改革은 政權과 유리된 社會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蘇聯 體制의 改革보다 더욱 더 어렵고 심각한 과정일 것이다.

* 〈註〉

- 註 1) 후르시초프時代に 관한 研究로는 Carl A. Linden, Khrushchev and the Soviet Leadership 1957-64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 1966
G. Breslauer, Khrushchev and Brezhnev As Leaders : George & Unwin;
S. Bialer, Stalin's Successors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
The Soviet Paradox, (New York : Knopf, 1986)
- 2) 用語의 使用은 George W. Breslauer, Five Images on the Soviet Futue (Berkeley : IIS. 1978)p.10
- 3) Alec Nove, Stalinism and After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86)
- 4) Walter Connor "Dissent in a Complex Society" Problems of Communism (March / April 1973) ; "Generation and Politics in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September / October 1975)
- 5) 하 용 출, Economuic Reform and the Party : Attitudes of Olbkom Secretaries of CPSU (Unpublished Dissertation, 1985, U. C. Berkeley) Chap. III
- 6) 蘇聯의 小數 民族問題에 관해서는, Stalin's Success Part. III, The Soviet Paradox Chapt. II
- 7) George W. Breslaur, Five Images of the Soviet Future : pp. 12 ff.
- 8) M. Gorbachev : Pere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 Harper & Row), Chap. I
- 9) Z. Brzezinski, "The Soviet System : Transormation or Degeneration?" Problems of Commumism (January / February, 1966)
- 10) 그의 見解는 最近 Grand Failure 에서 더욱 明白하게 들어나 東西에서 蘇聯 共產體制의 滅亡을 豫言하였다.
The Grand Failure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 1989)
- 11) Jerry Hough, "The Soviet System : Petrification or Pluralism" in Problems of Communism (March / April 1972)
- 12) Richard Lowenthal, "The Ruling Party in a Mature Society," Mark Field, ed.,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zah's Communist Societies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 Press, 1976)
- 13) Roy Medvedev : On Socialist, Democracy (New York : Nutov, 1975)
- 14) Ibid, pp. 58. 59. 1.1-4
- 15) Roy Medvedev, De'tente, or Socialist Democracy (New York : Monad

- Press, 1976) pp. 140-45.
- 16) 그의 代表的 著書, Seweryn Bialer, Stalin's Successors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1980) Chapter 4.
 - 17) K.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 and National Developmen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92-130.
 - 18) K. Jowitt, "Soviet Neotraditionalism : The Political Corruption of a Leninist Regime", Soviet Studies, (July, 1983). pp. 275-297.
 - 19) K. Jowitt, "Gorbachev : Bolshevik or Menshevik." (Unpublished Monograph Berkeley, 1989) p. 7
 - 20) Max Weber의 正統性概念에 대해서는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by T. Pansons (New York, 1947)
 - 21)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正統性 概念에 대해서는 T. H. Rigby와 F. Fehér eds., Political Legitimation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 S. Martin, 1982), Chapt. 1, 2, 3, 4. : , Jan Pakulsk, "Legitimacy and Mass Compliance : Reflections on Max Weber and Soviet Type Social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s, January, 1986, pp. 35-36
 - 22) 하용출 "蘇聯國家論의 歷史的 展開", 韓國정치학회편, 現代韓國政治와 國家 (서울, 법문사, 1986), p. 85
; USSR Academy of Sciences, Developed Socialism : Economy, Policy, Ideology (Moscow, 1981)
 - 23) Martin Lipset, Political Man :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24) 政權漂流 概念이전에 Leadership Drift에 관해서는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989 spring)의 Robert Hutchings, Lepak, Volgyes, Shoup 등의 논문 참조
정권표류 개념설정에 도움을 주는 배경문헌으로 Chest Barnard,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s,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1978) pp. 163 ff : H.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 The Free Press, 1975) p. 12 ff
 - 25) Jeffery W. Hahn, "Stability and Change in the Soviet Unions A Developmental Perspectives".
 - 26) V.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 Oxford Univ. Press, 1989) pp. 153-154
 - 27) R. Felix Geyer & D. R. Schweitzer, eds., Theories of Alienation (Leiden : Martinus Nijhoff, Social Sciences Division, 1976), pp. 3-59.
 - 28) Shlapentokh, op. cit., Chapter 6 이하 참조

- 29) 브레즈네프時代의 外交政策에 관해서는 Harry Gelman, The Brezhnev Politburo and The Decline of Detente(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 30) M. P. Gehlen, The Politics of Coexistence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67)
- 31) Pravda, 1989. 11. 26.
- 32) T. Zaslavskaiia가 작성했다고 보도된 당내토의용 자료, "The Novosivirsk Papers," Survey vol.28 (Spring, 1984 pp. 88-108, 그녀의 인터뷰 Izvestiia, June 1, 1985)
- 33) Pravda, 1990. 3. 6.
- 34) 하용출, "페레스트로이카와 政治改革 : 蘇聯소비에트 改革을 中心으로," 國際問題研究所 研究論文, 1989
- 35) 한겨레신문, 1990. 2. 28일자
- 36) ANH 2.16, 1990
- 37) ANH, "Befopfr pozugerema CCCP gulnrefr v cguie cmenigme cr Bceosugam, palresm npiuam u mau ufem rolowhirwem uz uackalkun Kawguzamign.
- 38) Gorbachev, Perestroika, Chapter I, II
- 39) Pravda, June 27, 1987
- 40) "Ob areudei arendynnkx otnoshonii v SSSR," Ekonomicheskaiya Gazeta 1989. 4.16
- 41) Philip Hansor, "The Socialist Enterprises Between Autonomy and Cistrains," a Paper read at Conference, Padua, September 1989.
- 42) Erik Whitlock, "The Agricultural Leasuis Debate," Report on the USSR, July 14, 1989
- 43) Erik Whitlock, "Sovriet Agriculture after The March Plenum," Report on the USSR, April 29, 1988
- 44) John Tedstrom, "The Goskomstat Report for 1989: An Ecomony our of Control," Report on the USSR, February 16, 1990
- 45) TACC March 6, 1990
- 46) TACC, March 6, 1990
- 47) 現在 私有財産制의 認定과 더불어 租稅制度의 改編이 論議되고 있다.

※※ 附 錄

(蘇聯의 主要動向：1989年度分)

〈蘇 聯〉

월 일	주 요 동 향
〈89년〉	
1. 1	△ 蘇聯黨 및 政府代表團(團長, 黨政治局員 모르디코프), 쿠바혁 명승리 3돌 行事に 참가차 모스크바를 떠나 아바나로 향해 出發.
1. 2	△ 蘇聯第1副外相兼 아프카니스탄 駐在大使 유리 묘론초프, 테헤 란에서 이란外相 벨라야치와 會談 갖고 아프카니스탄問題 論 議.
1. 3	△ 美·蘇間의 太陽系行星研究 위한 學術討論會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1. 4	△ 蘇聯·아프카니스탄間 89年度 交易에 관한 議政書가 모스크 바에서 調印.
1. 5	△ 고르바초프, 國際審査委員會에서 선정한 89년도 人格者賞의 受賞者로 薦舉돼 表彰狀과 記念메달을 파리駐在 蘇聯大使館 통해 전달받음. △ 유리 오론토프 蘇聯第1副首相, 이슬라마바드에서 부토 파키 스탄총리를 面談, 雙方 關係協調 強化問題 論議.
1. 6	△ 안드레이 사하로프박사, 레닌그라드 生理學研究所從業員會議에 서 蘇聯人民 代議員으로 推戴됨.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파리에서 열리는 化學武器禁止에 관 한 會議 參加차 모스크바 出發 △ 蘇聯黨政治局員 및 秘書 빅토르 세브리코, 아디스 아바바에 서 이디오피아大統領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과 회동, 고르 바초프의 書翰 傳達.

월 일	주 요 동 향
1. 7	△ 蘇聯第1副外相 묘론초프, 이슬라마바드에서 베나지르부토 파키스탄 總理에게 보내는 고르바초프의 親書 傳達.
1. 8	△ 고르바초프, 日本國王 히로히토의 死亡과 關聯 弔電. △ 세바르드나제-술츠間에 美·蘇外相會談이 파리에서 열림.
1. 9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市黨委員會를 訪問, 지난 해의 事業總和를 통해 政治·經濟的 改革活動을 역설. △ 콜 西獨首相, 西獨共產黨大會에 참가했던 蘇聯共產黨代表 團長 야코블레프와 회동, 雙方關係增進問題 論議. △ 蘇聯東洋競技協會會長 일리야고리요프, 蘇聯에 武術 跆拳道·가라데 等 東洋競技人 수가 50万名이 넘는다고 發表.
1. 10	△ 美國議會代表團, 아르메니아를 訪問, 地震被害復舊 지원다짐. △ 蘇聯共產黨 中央委全員會議가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의 報告演說과 함께 開幕.
1. 11	△ 아프카니스탄 國會代表團, 크레물린에서 蘇聯최고소비에트常任委第1副委員長 아나톨리 누키야노프와 會談. △ 現代그룹 鄭周永會長, 蘇聯商工會議所의 招請訪問日程을 마치고 모스크바에서 記者會見 開催.
1. 13	△ 蘇聯의 農工業綜合體管理完成 問題에 관한 會議가 黨中央委員會에서 開幕.
1. 14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파리를 實務訪問, 아프카니스탄 샤르크首相과 왓킬 外相과 會談갖고 食糧·生活必需品の 아프카니스탄 支援問題 論議. △ 제1차 러시아정교音樂 라스카축전이 모스크바에서 閉幕.

월 일	주 요 동 향
1. 15	<p>△人權問題에 관한 西方會議 執行理事會議가 모스크바에서 開幕.</p> <p>△ 蘇聯피겨스케이팅代表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14개 도시들에서 巡廻公演.</p>
1. 16	<p>△ 리즈코프 蘇聯首相, 아르메니아 地震被害復舊狀況 視察차 아르메니아 訪問</p> <p>△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레도정류소 미르토에서 있는 飛行 參加者들인 蘇聯과 會同.</p>
1. 17	<p>△ 세바드르나제 蘇聯外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33個 유럽國家 및 美國·캐나다代表 會合에서 演說차 모스크바 出發.</p>
1. 18	<p>△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前 프랑스大統領 데스탕, 나카소네 前 日本首相과 회동.</p> <p>△ 키신저 前 美國國務長官,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와 만나 美·蘇關係發展 問題 論議.</p>
1. 19	<p>△ 리즈코프 蘇聯首相, 아르메니아 地震被害對策委員會議 參席 後 모스크바 歸還, 記者會見.</p>
1. 20	<p>△ 유고슬라비아聯邦主席團, 마르코비치를 聯邦政府 總理의 正式 立候補者로 選出.</p>
1. 21	<p>△ 고르바초프, 부시 美國大統領의 就任에 祝電.</p>
1. 22	<p>△ 蘇聯最高소비에트代表團長 발레치나 체레스코바, 필리핀訪問 마치고 記者會見.</p>
1. 23	<p>△ 共產圈經濟相互援助理事會 創立 40돌 記念會가 모스크바에서 進行.</p> <p>△ 蘇聯치스카統計委員會委員長 미하일 고롤레프, 蘇聯의 88年 經濟實績은 改革政策 以後 所得 4.4%가 增加하는 등 健全 發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發表.</p>

월 일	주 요 동 향
1. 24	△ 蘇聯 모스크바市黨委員會 第1秘書 레이 라이코프, 實務訪問차 베오그라드 訪問,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者同盟 베오그라드市委員會委員들과 會談.
1. 25	△ 蘇聯外務省代辯人 겐나지 게라시모프, 모스크바 記者會見에서 아프카니스탄의 武裝勢力이 推進하고 있는 經濟封鎖에 대비, 아프카니스탄政府에 燃料·食糧等を 供給할 計劃임을 發表.
1. 26	△ 駐蘇美國大使 제크 미틀로크, 모스크바大使館에서 記者會見 통해 부시 美國大統領이 就任 첫 措置로 고르바초프와 電話談話を 가졌다고 發表.
1. 27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열린 '62년 카리브해 危機'에 관한 심포지엄에 書翰 發送. △ 蘇聯國防相 드미트리 야조프, 카불을 訪問, 아프가니스탄大統領 나자블라와 회동, 反政府武裝勢力에 대한 對策 論議.
1. 28	△ 蘇聯共產黨秘書 올레그 바클라노프, 레닌그라드의 生産聯合體와 研究所를 訪問, 住民消費品 生産增大 促求.
1. 30	△ 蘇聯海洋學者探查隊, 南極大陸의 生物學的 生態研究 위해 블라디보스톡을 出發.
1. 31	△ “모스크바방송” 第1次 國際記錄映畫祝典이 50個國 映畫製作者들이 參加한 가운데 進行, 蘇聯映畫 ‘만대소송’이 祝典 大賞을 차지했다고 報道. △ 蘇聯共產黨政治局員 알렉산드로 야코블레프, 美國民主黨上院議員 제시 잭슨과 회동, 아르메니아 地震被害 支援問題 等 論議.
2. 1	△ 蘇聯國家計劃委員長 유리 마슬리코프, 蘇聯經濟가 발전속도의 低下傾向을 克服했다고 指摘. △ 미국발레단(단장 으리시 무라우), 모스크바에서 첫 訪問公演.

월 일	주 요 동 향
2. 3	<p>△ 蘇聯首相 리즈코프, 모스크바의 大規模 電氣機械工場인 블라디미르 빌리공장을 視察.</p> <p>△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北京 訪問中 錢基琛 외교부장과 2次 會談.</p>
2. 4	<p>△ 소말리아大統領特使 파타크(副統領), 고르바초프에게 보내는 소말리아 대통령의 親書를 모스크바방문중 傳達.</p> <p>△ 蘇聯第1副外相 웨렌초프, 테헤란을 訪問, 웰라야찌 이란外相과 會談.</p>
2. 5	<p>△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大統領 굴함이사크한과 會談을 갖고 아프카니스탄 調整問題를 審議하는 과정에서 제네바協定을 준수치 않은 파키스탄측에 抗議.</p>
2. 6	<p>△ 蘇聯내무부상 레오니드 시조프, 蘇聯에 政治犯들이 있다는 서방보도 주장은 根據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蘇聯에는 政治犯이 없으며 87년과 88년도에 걸쳐 356명의 政治犯들이 모두 釋放되었다고 언급.</p>
2. 7	<p>△ 英國首相 대처, 런던에서 蘇聯 내각부수상 블라디미르 타멘체프와 會談 갖고 고르바초프의 4월 英國訪問 準備問題 等 論議.</p>
2. 8	<p>△ 리즈코프 蘇聯首相, 크레물린서 프랑스여가수 샤를르 아즈나브르와 회동.</p>
2. 9	<p>△ 蘇聯國防相 드미트리 야조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에 순전히 방어적 性格을 부여하게끔 이 機構들의 군사구조를 改編하는 것이 絶실히 필요하다고 성명.</p> <p>△ 蘇聯科學院代表團(단장 프리마초프원장), 2천년까지의 中·蘇 科學協調에 관한 協定을 조인차 北京訪問.</p>

월 일	주 요 동 향
2. 12	<p>△ “모스크바방송”, 남극대륙 중심부에 대한 최초의 撮影이 蘇聯人工衛星 코스코스 2000號에 의해 進行되고 있다고 報道.</p> <p>△ 유태인문화센터가 모스크바에서 開館.</p>
2. 13	<p>△ 안드레이 사하로프박사, 오타와에서 캐나다 首相 및 外相과 회동.</p>
2. 14	<p>△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中央委員會에서 蘇聯各地에서 온 勞働者들과 회합을 갖고 改革에 관해 說明.</p>
2. 15	<p>△ 아프카니스탄駐屯 蘇聯軍司令官 보리스 구로모가 모스크바로 歸還.</p> <p>△ 바르샤바條約 참가국 국방상회의 모스크바에서 進行.</p>
2. 16	<p>△ 고르바초프, UN事務總長에게 아르메니아 地震被害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데 대해 謝意 표시.</p> <p>△ 蘇聯貨物船 라호르가號, 蘇聯商船으로는 첫 韓國 入港.</p>
2. 17	<p>△ 고르바초프, 모스크바訪問中인 마이에 이디오피아외상과 만나 相互共通 관심사에 관해 會談.</p> <p>△ 蘇聯-체코間 會談이 모스크바에서 進行, 蘇聯側 대표로 리즈코프首相, 체코측 대표에 아다메츠 체스코슬로벤스크시장이 參席.</p> <p>△ 소련·EC(유럽공동체)간 貿易經濟協調에 관한 協定 準備協商이 브뤼셀에서 進行.</p>
2. 18	<p>△ 蘇聯共產黨政治局員 네오사이코프, 모스크바지구에 있는 76개 대학총장들과 회동, 대학생들의 意識轉換問題 등 論議.</p>
2. 19	<p>△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다마스쿠스에서 하페즈 아사드 시리아大統領과 만나 고르바초프의 親書 전달.</p>

월 일	주 요 동 향
2. 20	△ 고르바초프, 우크라이나수도 키예프를 訪問, 레닌銅像에 화환 전달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시에서 生産된 세계에서 제일 큰 輸送機의 試驗飛行 參觀.
2. 21	△ 蘇聯最高소비에트 상임위 제1부위원장 루키아노프, 東京에서 日本衆議員 및 參의원장과 회동, 雙方間의 對話發展을 강조.
2. 22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中근동 巡訪中 PLO指導者 야세르 아라파트와 카히타에서 會談.
2. 23	△ 蘇聯首相 니콜라이 리즈코프, 터어키 재정 및 세관상검 쌍방간 經濟協調委員會 공동의장인 알부 데모틴과 모스크바에서 會談.
2. 24	△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 후세인 이라크大統領과 會談 갖고 雙務關係發展에 관한 고르바초프의 親書 전달.
2. 25	△ 세바르드나제, 이란지도자 호메이니와 會談, 雙方關係發展問題 논의 및 고르바초프 親書 전달.
2. 26	△ 레닌婦人 라제스파 크롭스카야의 誕生 120週年 記念 경축회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2. 27	△ 蘇聯外務省情報局長, 니코시아에서 키프러스대통령 게오르기 바실라우와 會談.
2. 28	△ 이탈리아 共產黨總秘書 아킬레 오케로, 실무방문차 모스크바 방문.
2. 28	△ 蘇聯國防相 야조프, 금년 8월 15일까지 東獨·헝가리에서 3 個師團 탱크사단이 철거해체되었다고 發表.
3. 1	△ 蘇聯最高소비에트 常任委員會第1副委員長 아나톨리 루키아노프, 모스크바에서 유럽의회대표단과 회동, 蘇聯과 EC(유럽共同體)간 公式關係問題 論議.

월 일	주 요 동 향
3. 2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서 오르도니 스페인外相과 會談 갖고 蘇聯 스페인間 連繫關係 활성화문제 論議.
3. 3	△ 니콜라이 리즈코프 蘇聯首相, 실무방문차 訪蘇中인 헝가리정 부수반 니콜로스 네메트와 會談 갖고 雙方間 경제협조의 深化改善에 적극 努力하자는 데 合意.
3. 4	△ “모스크바방송”, 蘇聯과 中國間에 89년도 무역고가 17% 늘어난 48억프랑을 超過할 것이라고 報道. △ 蘇聯의 장기선수 이반츠크, 스페인 리마에서 進行된 國際試 合에서 헝가리선수를 제치고 우승 차지.
3. 5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오스트리아의 비인에 도착, 모크 오스트리아외상, 바로크니 헝가리外相 등과 회동.
3. 6	△ 蘇聯·캐나다 合營印刷企業所 크나카프린트쇼프가 모스크바에 서 첫 상점을 開設. △ 蘇聯內閣副首相 블라디미르 카멘체프, 蘇聯·인도間 경제협조 확대 問題 등 협의차 뉴델리 도착.
3. 7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비인에서 베이커 美國務長官과 會談통 해 5월 上半期에 모스크바에서 美·蘇外相會談 갖기로 합 의.
3. 9	△ 蘇聯內閣副首相 블라디미르 카멘체프, 蘇聯代表團 引率하고 인도방문 중 라지브 간디 인도수상과 會談.
3. 12	△ “모스크바방송”, 톨스토이 曾孫子 니키나 톨스토이(65세)가 새로 創設된 슬라브문화기금위원장으로 選出되었다고 報道.
3. 13	△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 蘇聯滯留中 병치료를 끝낸 포 르투갈공산당 총비서 알버트 쿤여으와 親善面談 갖고 상호 공동관심사에 관해 意見交換.

월 일	주 요 동 향
3. 14	△ 蘇聯外務省, 蘇聯軍事武官 보좌인 유리 바트호프서프중좌를 불법 抑留했다가 다시 추방한 것과 관련 모스크바 주재미 국대사관에 抗議.
3. 17	△ 蘇聯首相 니콜라이 리즈코프, 모스크바를 訪問中인 스웨덴재 정상 쉘리 울로프 웰트와 회동. △ 蘇聯黨政治局員兼 黨秘書 알렉산드로 야코블레프, 로마에서 줄리오 안드레오치 이탈리아외상과 會談 갖고 雙方間 經濟 科學및 文化協調에 관해 論議.
3. 18	△ 蘇聯保健部相 알렉산드로 콘드로세프, 모스크바에서 AIDS에 관한 記者會見 통해 蘇聯國民 176명이 AIDS 감염자로 등록됐고 4명의 患者중 3명이 죽었다고 발표.
3. 19	△ 蘇聯·日本外務部 당국자회의가 동경서 進行.
3. 20	△ 蘇聯最高소비에트常任委員會, 蘇聯陸海軍 50만축소에 관한 성명을 모스크바에서 發表.
3. 21	△ 蘇聯黨政治局員 알렉산드로 야코블레프, 이탈리아공산당18차대회에 參加中 필야코 데미타 이탈리아수상과 會談 갖고 雙方間 經濟協力擴大 논의.
3. 22	△ 蘇聯직맹중앙평의회 擴大全員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開幕.
3. 24	△ 고르바초프 蘇聯共産黨書記長, 모스크바를 訪問한 헝가리사회 노동당총비서 그로스와 會談.
3. 26	△ 蘇聯·東獨間 전기기계제품을 生産하는 최초의 합영기업소 設立에 合意.
3. 27	△ 핀란드외상 페루티 바하시워드 실무방문차 모스크바 도착. △ 美·蘇環境保護專門家會議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월 일	주 요 동 향
3. 28	△ UN駐在蘇聯常任代表 알렉산드로 페오노고프, UN사무총장과 아프카니스탄정세 등에 관해 會談.
3. 29	△ 이란외상 알라 아그바르 벨라야키, 실무방문차 모스크바에 도착, 고르바초프 蘇聯黨書記長等과 會談.
3. 30	△ 蘇聯國防相 야조프, 시리아방문 마치고 다마스쿠스에서 아사드大統領과 회동.
3. 31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과 벨라야키 이란외상간 會談이 모스크바에서 進行. △ 모스크바 兒童映畫祝典 폐막.
4. 1	△ 백러시아수도 민스크에서 에스페란토어 國際會談 開幕.
4. 2	△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 쿠바방문하러 가던중 아일랜드 샌런공항에 기착, 아일랜드수상과 頂上會談 進行.
4. 3	△ 이탈리아·蘇聯 商業會議所 총회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4. 4	△ 中國黑龍江省代表團, 모스크바를 訪問. △ 蘇聯商工會議所代表부가 서울에 設立됨.
4. 5	△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 쿠바방문중 쿠바인민주권민족회의에서의 연설통해 피델 카스트로와의 會談에서 雙務關係發展 및 냉전시기의 清算 등에 관해 論議했다고 언급.
4. 6	△ 蘇聯의 케도정류소 미르호에서 共同科學計劃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審議하는 蘇聯·오스트리아 전문가 會합이 오스트리아 그라스크시에서 進行. △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 런던방문중 대처 수상과 會談 갖고 雙務關係·軍縮問題·地域紛爭問題 등에 관해 논의.

월 일	주 요 동 향
4. 7	△ 노르웨이 북해안의 50Km 떨어진 公海上에서 蘇聯潛水艦이 선실내화재사고로 沈沒.
4. 8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서 파키스탄수상겸 특사 바시키예즈와 親善面談.
4. 9	△ 蘇聯·이라크간 友好協調條約 締結 7週年 관련, 양국지도자들의 전문이 交換됨.
4. 10	△ 蘇聯國防相 야조프, 노르웨이 公海에서 침몰한 蘇聯原子力潛水艦으로 주위의 環境汚染 가능성은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
4. 11	△ 蘇聯第1副外相 알렉산드로 베스메르트노흐, 바르샤바조약 外相委員會 會議에 참석차 베를린 도착. △ 蘇聯최고소비에트 第1副委員長 아나톨리 루키아노프, 中國의 記者代表團과 크레믈린에서 친선면담.
4. 12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 방문한 西獨 사민당위원장 한스 요겐 휘겔과 相互共同關心事에 關係 會談.
4. 14	△ 蘇聯·英國間 상업적 基礎위에 우주비행승인에 관한 협정이 모스크바에서 調印.
4. 15	△ 英國女王 엘리자베드의 막내 아들 에드워드왕자가 영국민족 청년극단의 蘇聯公演參加차 모스크바 도착.
4. 16	△ 蘇聯核研究協會가 모스크바에서 결성됨.
4. 18	△ 리즈코프 소련수상, 룩셈부르크 대공국 150돌 기념행사에 참석차 모스크바떠나 룩셈부르크로 出發. △ 고르바초프, 야케시 체코공산당총비서와 모스크바에서 會談 갖고 雙方間 친선협조문제 等 論議.

월 일	주 요 동 향
4. 19	△ 蘇聯科學院會議가 모스크바에서 開幕.
4. 21	△ 베트남공산당총비서 구엔 반 린, 蘇聯親善訪問차 모스크바 도착.
4. 22	△ 고르바초프, 파키스탄민족당총재 압둘 발리한에게 보낸 답신 성명 통해 아프카니스탄문제의 軍事的 해결책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公言.
4. 22	△ 아일랜드수상 호크, 일본방문차 모스크바에 잠시 기착, 가넨 초프 蘇聯副首相과 회동.
4. 23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방문한 구엔 코탁 베트남외상과 會談 갖고 雙方間 協調增進問題 논의.
4. 25	△ “모스크바방송”, 소련탱크를 실은 열차들이 부다페스트 동남방의 데스콘할라시를 떠남으로써 蘇聯軍의 부분철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報道.
4. 25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련공산당중앙위 전원회의를 主宰.
4. 26	△ 蘇聯·프라스공동위성 포토 누어가 오전 9시 蘇聯의 블레치에츠크 우주비행장에서 發射됨.
4. 28	△ 蘇聯·英國間 合作 TV프로 및 영화제작위한 합영기업소가 모스크바에서 창립됨.
4. 29	△ 蘇聯副外相 이고르 로가초프, 모스크바에서 日本副外相 구리야마 다카가스와 蘇·日 講和條約에 관한 제2차 실무회의 진행.
4. 29	△ 소련아이스하키대표팀,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팀을 5대3으로 격파, 우승.

월 일	주 요 동 향
4. 30	△ 후세인 요르단국왕, 蘇聯外相의 보좌관이며 극동문제전문가 겐나지 다라사프와 親善面談.
5. 1	△ 蘇聯·핀란드間 합작호텔인 사보이호텔 모스크바에서 開館.
5. 3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서 우노 日本外相과 蘇·日關係發展 및 平和條約調印 문제를 審議하는 會談.
5. 4	△ 蘇聯·캐나다 합영원유채취기업소가 서부시베리아에서 作業 開始.
5. 5	△ 고르바초프, 日本 우노外相과 모스크바에서 會談 갖고 雙方 關係發展問題 等に 關係 논의.
5. 7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서 짐바브웨외상 샤무야디 라와 會談 갖고 아프카니스탄정세가 파키스탄의 내정 간섭 等으로 더욱 尖銳化되고 있다고 言明.
5. 10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베이커美國務長官間的 1次 會談이 모 스크바에서 進行. 세계정치문제·지역문제·군축문제 등 論 議. △ 蘇聯保健相 니호게니 샤조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42차 정기회의에서 蘇聯은 보건비에 50억루블 이상의 資 金を 추가 支出했다고 발표.
5. 11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美國務長官과 會談 갖고 蘇聯의 軍 縮問題에 關係 의견교환.
5. 12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본에서 西獨外相 콜과 會談 갖고 고르바초프의 6월중순 서독방문준비문제 등 論議.
5. 13	△ '모스크바의 성과' 藝術祝典이 모스크바에서 閉幕.

월 일	주 요 동 향
5. 14	△ 蘇聯·美國間에 측정계기 및 전자오락기 생산하는 합영기업소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수도 바스크에서 創設.
5. 15	△ 國際原子力發展所들을 운영하는 세계기구협회·창립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 고르바초프, 北京訪問 도착 성명 발표.
5. 17	△ 蘇聯副外相 블라디미르 베드 로프스키, 國際原子力機構總裁 한스 블릭스와 회담 갖고 공동관심사 論議.
5. 18	△ 社會主義國家 경제상호원조이사회 부수상급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閉幕. △ 蘇聯第1副外相 비올리 보론초프, 이란 지도자들과 會談 위해 테헤란 도착.
5. 19	△ 스페인국방상 나르시스 세라, 蘇聯訪問차 모스크바도착.
5. 20	△ 리즈코프 蘇聯首相, 모스크바 직맹 열성자들에게 蘇聯政府의 經濟改革이 강화되고 새연금법 초안이 연내에 전인민적 討議에 붙여질 것이라고 역설. △ 蘇聯·이란間 경제무역협조정서가 調印.
5. 22	△ 蘇聯共産黨中央委員會 전원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 蘇聯外務省代辯人, 英國政府의 非友好的 조치와 관련된 모스크바주재 영국대사관직원 11명에 추방령 通報.
5. 23	△ 리즈코프 蘇聯首相, 모스크바 訪問中인 마르시소 세이라 스페인국방상과 會談.
5. 24	△ 라지브 간디 인도수상, 뉴델리 방문한 로가초프 蘇聯副外相과 만나 中·蘇頂上會談에 대한 환영입장 표시.

월 일	주 요 동 향
5. 25	△ 蘇聯·美國 ‘음악의 밤’이 모스크바 音樂大學에서 進行.
5. 26	△ 고르바초프,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최고소비에트위원장으로 被選. △ 타스통신사총사장 레오니드 크라우첸코, 英國外相 하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蘇聯관원들의 추방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시.
5. 27	△ 소련국방상 드미트리 야조프, 蘇聯은 91년 1월까지 동부지역에서 20만명의 陸海軍을 削減한다고 성명.
5. 28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 실무방문중인 인도네시아 외상 아라다스와 會談 갖고 캄보디아문제 및 동남아 정세 등에 관해 意見交換.
5. 29	△ 蘇聯最高소비에트 第1부의장에 고르바초프가 추천한 루키아노프가 인민대의원대회에서 選출됨.
5. 30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進行된 蘇聯人民代議員大會에서 政策基本 방향에 대한 보고연설.
5. 31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파리 방문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蘇聯은 통상 무기삭감에 대한 회담을 한해동안에 끝낼 용의가 있다고 표명. △ 고르바초프, 소련 작가 라오니드 레오노프 탄생 90돐에 즈음 모스크바에 있는 作家의 邸宅을 방문하고 장미꽃 전달. △ 모스크바에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르 오레암과의 화장품 합영기업소가 創設.
6. 1	△ 인권문제대표자회의 蘇聯代表 유리 카슬로프, 인권문제대표자 회담 파리협의회에 참가, 蘇聯은 人權問題의 社會團體法을 포함 약·50가지의 새법률 문건을 심의하고 있다고 발언.

월 일	주 요 동 향
6. 3	△ 蘇聯科學院과 美國科學院간의 지구환경보호문제위원회 제1차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閉幕.
6. 4	△ 蘇聯共產黨政治局員 바진미드레프, 모스크바 방문중인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허성과 만나 쌍방 사회과학분야에서의 協調問題 論議.
6. 5	△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 우랄지방의 철도여객 객차충돌 사고에 따른 慘死現場 방문.
6. 6	△ 부시 美國大統領, 워싱턴주재 蘇聯大使館을 방문, 우랄지방 慘死에 弔意 표시.
6. 7	△ 蘇聯最高 소비에트 제1차 전원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 니콜라이 리즈코프 소련수상, 제네바에서 열리는 國際勞動機構總會 참가자들에게 축전.
6. 8	△ '90년대의 蘇聯改編과 동서경제 협조를 위한 새가능성'제하의 국제회의가 모스크바에서 30개국의 300여명 대표들이 參席한 가운데 進行.
6. 10	△ “모스크바 방송”, 蘇聯은 日本·이탈리아·英國·美國 等 세계 각국과 500개의 합동기업소를 창설했다고 報道.
6. 12	△ 美합동참모본부의장 윌리엄 크라우제독, 蘇聯 공식방문차 모스크바 도착. △ 고르바초프, 헬무트 콜 西獨 首相과 會談 갖기 위해 본 도착. △ 軍事活動을 防止하기 위한 美·蘇協定이 모스크바에서 調印.
6. 13	△ 고르바초프, 西獨訪問中 바이체커 西獨대통령 주최 국회만찬회에 參席. △ 蘇聯 제1부외상 베츠네르크네프, 모스크바 訪問한 PLO 집행위원 마호메드 아바스와 중근동 問題에 관해 協議.

월 일	주 요 동 향
6. 15	△ 고르바초프, 東獨 公式訪問日程 종료.
6. 16	△ 大韓貿易振興公社 무역관장 성청형씨가 모스크바주재 KOTRA 본부장에 부임차 모스크바 착.
6. 20	△ 베트남국방상 테득 안, 드미트리 야조프 蘇聯國防相 招請으로 모스크바 訪問. △ 이란국회의장 라프 산자니, 고르바초프 招請으로 모스크바 訪問.
6. 21	△ 고르바초프, 美國統合參謀本部 의장 크라우 해군대장과 만난 자리에서 美·蘇 關係改善에 군부지도자들의 연계관계중요성 強調.
6. 22	△ 蘇聯·이란間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계획이 모스크바에서 調印.
6. 23	△ 蘇聯最高소비에트 常任委員會議가 고르바초프 사회하에 크레믈린에서 進行.
6. 26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의 90돌에 즈음, 헤이그에서 진행되는 平和와 國際法이라는 非同盟國 各료회의에 축전.
6. 27	△ 蘇聯最高소비에트 양원합동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開幕.
6. 30	△ 테레사 수녀, 蘇聯訪問中 모스크바에서 記者會見.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蘇聯最高소비에트 代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외상에 選任.
7. 1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서 신임 프랑스대사 메리온과 회동. △ 고르바초프, 소련TV방송연설에서 蘇聯內의 民族分爭終熄을 촉구.

월 일	주 요 동 향
7. 2	△ 북대서양총회 대표단(단장 의장 파크리크 나세르), 蘇聯最高 소비에트 招請으로 모스크바 방문.
7. 3	△ 蘇聯國防相, 드미트리 야조프, 蘇聯最高소비에트회의에서 국방 상으로 再選出됨. △ 모스크바대극장 오페라배우단, 日本에서 巡廻公演. △ 蘇聯最高人民會의 의장을 지낸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80세를 일기로 死亡.
7. 4	△ 고르바초프, 프랑스 公式訪問中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會談.
7. 6	△ 바르샤바 條約參加國 政治協商 委員會 실무위원회가 부크레 시티에서 開幕.
7. 7	△ 國際映畫祝典이 모스크바에서 開幕.
7. 8	△ 고르바초프, 부크레시티에서 폴란드지도자 야루젤스키와 相互 親善關係 발전문제에 관해 會談.
7. 9	△ 7개 바르샤바 조약참가국 지도자들이 核武器와 化學武器가 없는 안전한 유럽창설을 호소하는 성명을 부크레시티에서 發表.
7. 10	△ 蘇聯 內務相에 바진 바카진이 任命됨.
7. 11	△ 蘇聯外務副相 아나톨리 아담신, 앙골라방문 중 산토스대통령 과 會談갓고 상호관심사에 관해 義見交換.
7. 12	△ 蘇聯司法相에 법학자 빌리야 민 야코블레프를 任命.
7. 14	△ 蘇聯黨政治局員 예고르 리가초프,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된 야 노스 카다르 헝가리지도자 葬禮式에 參席.

월 일	주 요 동 향
7. 15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 訪問한 라지브 간디 인도수상과 會談 갖고 雙方間 경제과학기술 및 군사협조문제 等 論議.
7. 16	△ 유네스코總裁 피드리코 마이 요로, 蘇聯政府 招請으로 모스 크바 訪問.
7. 17	△ 世界 종교이사회 정화위원회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 蘇聯·유네스코間 전자계산기술정보학 국가위원회간 정보분야 협조협정이 모스크바에서 調印.
7. 18	△ 蘇聯·인도間 기업소 연계조정정서가 모스크바에서 調印.
7. 20	△ 蘇聯·유럽경제공동체간 貿易 및 經濟協調協定締結에 관한 會談이 브뤼셀에서 終了.
7. 21	△ 蘇聯最高소비에트 양원합동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탄광광 부들의 과업에 따른 경제위기문제 等 審議.
7. 22	△ 蘇聯·中國間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차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7. 23	△ 고르바초프, 우크라이나 에에 츠크탄진 炭夫들에게 作業再開 호소하는 전문발송.
7. 24	△ 한국경제인연합회대표단(단장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 시베 리아 資源 開發問題 협의차 蘇聯訪問.
7. 25	△ 蘇聯國防相, 드미트리 야조프, 런던방문中 대처 영국수상과 會談갖고 軍縮問題 論議.
7. 26	△ 中國·蘇聯間 경제무역과학기술협조에 관한 제4차회의가 모스 크바에서 폐막.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를 訪問한 몽고지도자 바트문호와 雙務 協調 및 國際情勢에 관해 會談.

월 일	주 요 동 향
7. 27	△ 蘇聯政府總理 리즈코프, 모스크바에서 이란重工業相 나바위와 쌍방간 경제협조확대문제 論議.
7. 28	△ 蘇聯最高소비에트의장 顧問 세르게이 아흐메이드 원수, 미국 방문중 白堊館에서 부시대통령과 美·蘇 關係 協調問題 等 論議.
7. 29	△ 고르바초프, 폴란드통일노동당 제1비서로 선출된 네치슬라프 라코프스키에게 祝電.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파리에서 열린 캄보디아문제해결 위한 국제회의 참석중 베이커 美國務長官과 會談.
7. 31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實務訪問차 테헤란을 訪問,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 이란外相과 會談.
8. 1	△ 蘇聯外相 세바르드나제, 실무방문차 테헤란을 訪問, 이란대통령 하사니 라프산자니와 會談 갖고 雙方間 관계선린과 호혜협조증진 문제 協議.
8. 2	△ 蘇聯共產黨書記長 고르바초프, 모스크바 방문중인 前폴란드 직맹협조위원장 알프레드 메로비치와 친선 面談.
8. 4	△ 蘇聯最高소비에트 제1차 정기회의가 제1부수상 유리 마츠오코프의 90년 蘇聯社會經濟 계획 및 기본방향에 관한 報告 聽取 後 閉幕됨.
8. 6	△ 蘇聯外相 세바르드나제, 실무방문차 아프카니스탄의 카불 도착 후 나지블라대통령과 會談.
8. 7	△ 蘇聯憲法 개정준비위원회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 미국국회대표단(단장 미하원의원 레스레컨), 소련최고소비에트의 초청으로 모스크바 방문.

월 일	주 요 동 향
8. 8	<p>△ 蘇聯대극장배우단, 英國巡迴公演에서 대치 영국수상이 觀覽하는 가운데 ‘백조의 호수’ 公演.</p> <p>△ 韓國蹴球國家代表팀, 모스크바 방문 친선경기에서 蘇聯의 스파르타팀과 2대2로 무승부 記錄.</p>
8. 10	<p>△ 蘇聯第1副外相 알렉산드로베스 메호니프,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인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과 베이커 美國務長官간의 회담에 관한 실무문제 협의차 美國 訪問.</p>
8. 11	<p>△ 蘇聯 우크라이나도시에 폴란드 가톨릭교회 건설작업 開始.</p>
8. 12	<p>△ 蘇聯共産黨中央委員會全員會議 제1차회의가 리가에서 進行됨.</p>
8. 13	<p>△ 環境問題에 관한 國際會합이 美國·西獨·이탈리아·蘇聯 等 각국대표단 參席下에 모스크바에서 進行.</p>
8. 15	<p>△ 蘇聯陸軍司令官 발레친 발레니코프, 蘇聯軍事顧問團이 아프카니스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해외통신사들의 보도를 虛僞라고 反駁.</p>
8. 21	<p>△ 蘇聯國防相 디미트리 야조프, 핀란드방문 마친 후 “타스통신”과 회견 통해 蘇聯-핀란드間 親善增進強化 역설.</p>
8. 22	<p>△ 蘇聯·日本外務省 대표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進行되어 地域紛爭調整, 軍縮問題, 두나라간 협조발전문제 討議.</p> <p>△ 제11차 전국방사선 生物學大會가 모스크바에서 進行.</p>
8. 24	<p>△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레바논사태에 대한 깊은 憂慮 表明.</p>

월 일	주 요 동 향
8. 25	△ 고르바초프, 로마教皇 요한바오로 2세에게 소련외상특사 유리 카를로프를 통해 서한을 傳達.
8. 27	△ 리즈코프 蘇政府總理, 크레믈린에서 미하원농업문제위원회 대표단(단장 위원장 엘리초우 델과 가르샤)과 회동하고 美·蘇間 경제협조확대문제 等 意見交換.
8. 28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서 루마니아 요한 토투외상과 會談.
8. 29	△ 蘇聯·인도네시아間 무역경제협조 합동위원회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폐막.
8. 31	△ 蘇聯保健相 에르겐 차스프, 모스크바에서 아르메니아 地震地域에서 봉사활동한 의료원들에게 국가표창상을 授與.
9. 1	△ 蘇聯政府總理 리즈코프, 日本의 사회활동가 마스마이시와 會見, 蘇聯·日本間의 국제협조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의 書翰 傳達.
9. 2	△ 蘇聯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이 지역 最高소비에트와 대통령의 직접선거실시를 促求하는 群衆集會 進行.
9. 3	△ 國際天體物理學者會議가 우즈베크스탄의 수도 타시켄트에서 開幕.
9. 4	△ 러시아정교회, 총주교제를 제정한 지 400주년을 기념하는 國際宗教學術會議 모스크바에서 개막.
9. 5	△ 평양가무단, 蘇聯 우즈베크스탄에서 親善公演 進行.
9. 6	△ 蘇聯우주비행선, 바이코노주 비행장에서 出發.

월 일	주 요 동 향
9. 9	△ 蘇聯最高 소비에트대위원 겸 당중앙위위원 보리스 엘친, 미 국방문차 뉴욕 도착.
9. 11	△ 수하르토 인도네시아대통령, 모스크바를 訪問, 고르바초프와 雙方間 親善協調擴大에 關係 會談. △ 소련최고소비에트 대표단(단장 최고소비에트 제1부의장 로키아노프), 북경 방문차 모스크바 출발.
9. 12	△ 蘇聯 最高소비에트 대의원겸 당중앙위원 보리스 엘친, 美國 訪問中 부시대통령과 美·蘇 關係발전에 關係 會談.
9. 13	△ 蘇聯最高소비에트 대표단(단장 니콜라이 베닌세프), 뉴질랜드 訪問.
9. 14	△ 蘇聯 最高소비에트 제1부의장 로키아노프, 中國訪問 중 중 국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萬里와 회담.
9. 15	△ 한국민주당부총재 황명수, 강인섭 의원 모스크바 訪問.
9. 16	△ 蘇聯의 아제바이잔 最高 소비에트 임시회의에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독립채산제 履行問題 等 審議. △ 소련정부 總理 리즈코프, 마더 테레사 수녀의 건강 회복을 기원.
9. 17	△ 소련국방상 야조프, “이즈베스티야”지와 會見에서 전략공격 무기 削減에 關係 美·蘇會談에 進陟이 있다고 언급.
9. 18	△ 대처 英國首相, 日本訪問 中 모스크바에 기착, 蘇聯 最高소비에트 연맹 소비에트 의장 요르게니 트리마코프와 회동.
9. 19	△ 고르바초프 蘇聯共產黨書記長, 모스크바에서 進行된 당전원회의에서의 보고연설 통해 소비에트 가맹공화국들의 자립성과 자주권 강화를 촉구.

월 일	주 요 동 향
9. 21	<p>△ “모스크바 방송” 우즈베크스탄에서 발생한 폭동사건과 관련해 200명의 폭동자를逮捕했다고 報道.</p> <p>△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새로 선출된 당소속 노동자 구호 조장들과 친선면담.</p> <p>△ 蘇聯 第1副外相 줄리 브론초프, 모스크바주재 파키스탄 대사 아부돌 사타르와 蘇聯軍捕虜 釋放問題 論議.</p>
9. 22	<p>△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워싱턴에서 부시 美國大統領과 會談 갖고 군비관리문제에 관해 言及한 고르바초프의 親書 전달.</p>
9. 23	<p>△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英國首相 대처여사와 회담 갖고 소련의 개혁에 관해 意見 交換.</p> <p>△ 고르바초프, 모스크바 訪問한 프랑스공산당 총비서 조르지 마르세와 會談 갖고 蘇聯의 改革政策에 대해 說明.</p>
9. 24	<p>△ 蘇聯 내각 제1부수상 레호 모로니,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最高 소비에트會議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非常措置에 관해 報告.</p> <p>△ 고르바초프, 最高소비에트會議에 參席,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간의 民族紛爭을 容納할 수 없다고 言及.</p>
9. 26	<p>△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UN總會 연설 통해 군축에 관한 새 提案 提示.</p>
9. 27	<p>△ 고르바초프, 우크라이나 共產黨 全원회의에 參席차 키예프市 訪問.</p>
9. 28	<p>△ 核武器 및 宇宙武器에 관한 美蘇會談이 제네바에서 진행.</p>

월 일	주 요 동 향
9. 29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뉴욕에서 아프카니스탄 外相과 會談 갖고 파키스탄과 美國이 제네바협정을 違反하고 있다고 憂 慮 표시
9. 30	△ 고르바초프, 우크라이나 鑛夫들과 친선면담을 갖고 鑛夫들의 厚生問題에 관해 意見 交換.
10. 1	△ 蘇聯社會界 대표단(단장 최고 소비에트 의장고문 바딤 시크 바신), 蘇聯의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및 직맹·경제학자·종 교활동가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프랑스 정치인 및 사회계 대표들과 회동하기 위해 파리 訪問.
10. 2	△ 蘇聯 글라브 코스모스 우주총국 대표단(단장 우주비행사 블 라디미르 바스노프), 英國에서 蘇聯의 宇宙情報를 營業的으 로 利用하는 문제에 관한 會談 進行.
10. 3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니카라과를 訪問, 다니엘 오르테가대 통령과 만나 雙務關係 問題 및 중미정세문제 論議.
10. 5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아바나를 訪問, 카스트로 쿠바수상과 會談.
10. 7	△ 고르바초프 蘇聯 공산당서기장, 베를린 방문 중 동독국가창 건 40주년 경축회의에서 演說.
10. 9	△ 世界 UN협조협회연맹 전원총회가 모스크바에서 進行. △ 고르바초프, 헝가리 社會黨委員長으로 선출된 리즈어 니어드 에게 祝電.
10. 10	△ 蘇聯·日本 社會系 제4차 극동회의가 삿포로에서 進行.

월 일	주 요 동 향
10. 11	△ 蘇聯·韓國間 漁業加工 합영회사 설립 조인식이 나호드카에서 進行.
10. 13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進行된 蘇聯共産黨과 대중보도기관 및 창작동맹, 사상기관 지도자들간의 회합에서 演說.
10. 14	△ 西獨 社會民主黨 대표단(단장 사회민주당 명예위원장 브란트), 모스크바를 訪問.
10. 17	△ 蘇聯政府總理 리즈코프, 美國 法務長官 리차드 턴베거와 만나 상호공동 관심사 論議.
10. 18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進行된 소련국방평의회 직속 군사총평의회 회의에서 演說 통해 陸海軍 改編을 적극적으로 推進할 것에 대한 과업 提示.
10. 20	△ 고르바초프, 크레믈린에서 안젤로 소다노 대주교와 接見하고 로마교황 바오로 2세의 親書 傳達 받음.
10. 21	△ 세계토지개량 89전람회가 100여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進行.
10. 23	△ 모스크바 國立綜合大學과 延世大學間的 협조협정이 모스크바에서 調印.
10. 26	△ 고르바초프, 핀란드방문 중 헬싱키에 있는 핀란드 궁전에서 演說 통해 유럽 兵力 및 武器削減과 信賴措置에 관한 35개 전유럽회의 참가국 지도자들의 調印을 提議.
10. 29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進行된 경제전문가 會議에서 演說. △ 化學武器 禁止에 관한 美·蘇 會談이 뉴욕에서 進行.

월 일	주 요 동 향
11. 1	△ 고르바초프 蘇共産黨 서기장, 실무방문차 모스크바에 온 에 곤 크렌츠 동독서기장과 會談 갖고 東獨問題의 자주적인 解決立場을 強調.
11. 4	△ 蘇聯의 社會主義 10월 혁명 72주년 경축회의가 모스크바에 서 進行. △ 고르바초프, 프리모리에에서 蘇聯外交團과 親善面談. △ 인도의 著名한 화가이며 사회활동가인 스페슬라브 테리그, 소련방문차 모스크바 도착.
11. 5	△ 蘇聯·이란間 경제협조협정이 테헤란에서 調印.
11. 6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進行된 社會主義 10 월 革命 72주년 기념 근로자 示威行事に 參席.
11. 7	△ 化學武器에 관한 美·蘇 協商이 뉴욕에서 閉幕됨.
11. 8	△ 蘇聯의 사기 및 工藝유리전시회가 平壤에서 進行.
11. 9	△ 스웨덴外相 스텐 안드레곤, 소련방문차 모스크바 도착.
11. 10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에서 안데르손 스웨덴外相과 會談.
11. 11	△ 고르바초프, 조토르 몰라데노프 新任 불가리아 공산당 총비 서에게 祝電.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 모스크바 駐在 인도대사 알프레드 곤스라웰스와 회동, 쌍무협조문제와 국제문제 等 論議.
11. 12	△ 蘇聯의 근본적 경제개혁에 관한 전국회의가 모스크바에서 開幕. △ 蘇聯 最高소비에트 대표단(단장 당정치국원 알렉산드로 야코 프), 日本訪問中 일본국회의원들과 회동, 쌍방관계 개선문제 等 論議.

월 일	주 요 동 향
11. 13	△ 國際科學討論會가 30여개국가 정치·군사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進行.
11. 14	△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뒤마 프랑스외상간 會談이 모스크바에서 進行, 유럽에서의 國境不可侵 確保問題 等 論議.
11. 15	△ 蘇聯 國家 축구대표팀, 터어키에 2대 0으로 승리, 90년 로마월드컵 出戰 資格 獲得.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학생 會議에 參席해 4시간 동안 학생들과 討論 進行.
11. 16	△ 蘇聯最高소비에트 양원의장 예프게니 프리마코프, 프랑스 하원의장 파비우스와 모스크바에서 회동.
11. 17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 滯留 中인 西獨議會議長 리타 주스모트와 회동, 相互間的 親善 強化 다짐.
11. 18	△ 蘇聯 最高소비에트 대표단(단장의장 프리마코프), 美國訪問中 TV 회견 통해 美國사람들의 蘇聯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했다고 指摘.
11. 19	△ 캐나다 수상 브라이언 멀루니, 公式訪問차 모스크바도착.
11. 20	△ 蘇聯國防相 드미트리 야조프, 오스트리아 訪問.
11. 21	△ 蘇聯의 黑海 沿岸 5대도시 중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자카르바지아주가 領內에 자유경제지역 창설에 관한 발기안을 蘇聯政府에 提議.
11. 22	△ 蘇聯最高소비에트 會議에서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발틱해 沿岸 3개 가맹공화국들의 경제적 자립성에 관한 法案 討議.

월 일	주 요 동 향
11. 24	△ 蘇聯· 캄보디아간 90년도 商品交易支拂에 관한 의정서가 모스크바에서 調印.
11. 25	△ 리즈코프 蘇聯首相, 폴란드 首相 마조비에츠키와 會談 갖고 雙方間 經濟科學·文化部門 등 다방면적 協調 다짐.
11. 27	△ 고르바초프, 모스크바에서 열린 蘇聯人民 代議員大會의 憲法委員會會議를 주재. △ 고르바초프, 체코공산당 총비서로 選出된 카렐 오르바니크에게 祝電.
11. 28	△ 고르바초프, 이탈리아 방문 중 로마시의회에 모인 과학인·문화인들 앞에서 90년에 전유럽 頂上會談을 提議.
11. 29	△ 蘇聯商業相 콘드라치 테레프, 中國商業部長 호평과 모스크바에서 會談 갖고 雙方間 經濟交流 問題 協議.
12. 1	△ 고르바초프 서기장, 교황청과 外交關係 樹立에 合意. △ 아르메니아 공화국, 「아르메니아 연방공화국」 樹立 宣布.
12. 4	△ WTO 정상회의 모스크바에서 개최, WTO군의 체코침공 謝過 성명 발표.
12. 4~5	△ 日·蘇 科學技術協會 합동위원회 모스크바에서 開催. △ 겐셔 西獨外相, 蘇聯 訪問.
12. 6	△ 蘇聯·프랑스 頂上會談 키예프에서 開催.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蘇聯訪問 佛·蘇 頂上會談 開催.
12. 7	△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共和國, 共產黨의 지도적 役割 規定한 憲法條項 削除와 共和國 中 最初로 多黨制 導入許容을 檢討.

월 일	주 요 동 향
12. 8	△ 프라우다지, 共産黨 독재 條項 廢棄 가능성 示唆.
12. 9	△ 共産黨 中央委 총회 개최, 당의 지도적 役割 條項 修正問題 等에 관한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演說聽取 後 90. 1 擴大 黨中央委總會 開催 決議.
12.14~ 24	△ 제2차 인민대의원 대회 開催:고르바초프 서기장의 演說聽取 및 主要法案 審議·採擇.
12. 13	△ 리즈코프 總理, 제2차 인민대의원 대회에서 90~95년 推進 할 中·長期 經濟政策 및 개혁방침을 발표하고 COMECON 國家間 공동시장 創設을 提議.
12. 14	△ 蘇聯 財政赤字 緩和를 위해 90년 총 100억루블(160억불)의 國債 發行 豫定.
12. 14	△ 反體制 物理學者 사하로프 死亡.
12. 15	△ 페트로프스키 外務副相, 海外駐屯 蘇聯軍 全원(62만 7천명) 撤收 計劃을 言及. △ 국방부, 90년도 國防豫算 발표, 전년비 8.2% 削減된 709억 8천만루블(1,140억불)로 策定.
12. 18~ 19	△ 세바르드나제 外相, 벨기에 및 EC 방문, EC와 10개년 貿易·經濟 協力協定을 締結하고 EC·COMCON·EFTA 等 유럽 3개 貿易權을 統合하는 「유럽3각 위원회」創設 提案 (12.18)
12. 20	△ 리투아니아共和國 共産黨, 蘇聯 역사상 最初로 分離 독립선 언.
12. 24	△ 人民代議員 大會, 발트 3국 合併을 규정한 獨·蘇 秘密協約 無效 決議文 채택.
12. 25~ 26	△ 共産黨 中央委 臨時總會 開催,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연방당 脫皮 宣言은 不法·無效라는 黨 방침 採擇.